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만 가  
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가  
까워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  
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6월 20일 (토) 제 153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부활한 칼리파제국의 악몽에서 산다!

허핑턴포스트&BBC, 'IS 장악 1년, 달라진 모술에서의 삶' 보도

IS 군사대원들이 이라크 치안부대를 격퇴하고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모술을 장악한 지 1년이 지났다. 모술에는 억압이 만연해있다.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태형을 내린다. 소수민족들은 집을 빼앗겼으며, 잔혹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6월 10일, IS가 모술을 장악했다. IS는 며칠 만에 도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가혹한 규율을 시행했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시작

했고 관료기관도 세웠다. 그 후 1년 동안 IS 치하의 지극히 끔찍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새어나왔다. IS가 장악 직후 내린 칙령의 결과 생긴 문제도 있으며, IS가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능력을 점점 더 잃고 있어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다고, 허핑턴포스트와 BBC가 보도한다(Life In Mosul, A Year After ISIS Took Over, Inside Mosul: What's life like under Islamic State?).



급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 국가선언 1년이 지나면서 점령지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전체를 가리는 옷을 입은 여성에게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처벌성으로 꾸짖었다.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남성 친척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히스바'라는 종교경찰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 간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 여성들도 드레스 코드를 따라야 하며,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주민들이 가디언에 전했다. 모술의 군사 통제는 교육에도 이

뤄져, 학교들은 문을 닫거나 IS가 승인한 세뇌 교육 시설로 바뀌었다고 모술의 소식통들이 BBC에 알렸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이 빠져있다고 한 주민이 알 자지라에 전했다. 주민들은 IS가 자신들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잔혹한 벌을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휴먼 같은 사소한 위반에 태형을 내리고, 도둑의 손을 자르며 불륜을 범한 여성은 돌을 던져 죽인다는 것이다. <14면으로 계속>

### 번영신학은 성경적으로 완전 왜곡됐다!

TGC, 번영신학의 결정적인 5가지 신학적 잘못들 소개

찰스 스펔전 목사는 이미 100년 훨씬 이전에,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반 기독교적이며 거룩하지 않은 행위"라고 모든 기독교권(가장 큰 교회를 포함)에서 설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교회들에서는 새로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복음은 "원하는 것을 부르고 요구하라", "원하는 것에 떠들고 움켜쥐라"고 말하는 바로 "건강과 재물"을 강조하는 번영신학이며, 번영복음이다. 번영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명명하든지 간에, 메시지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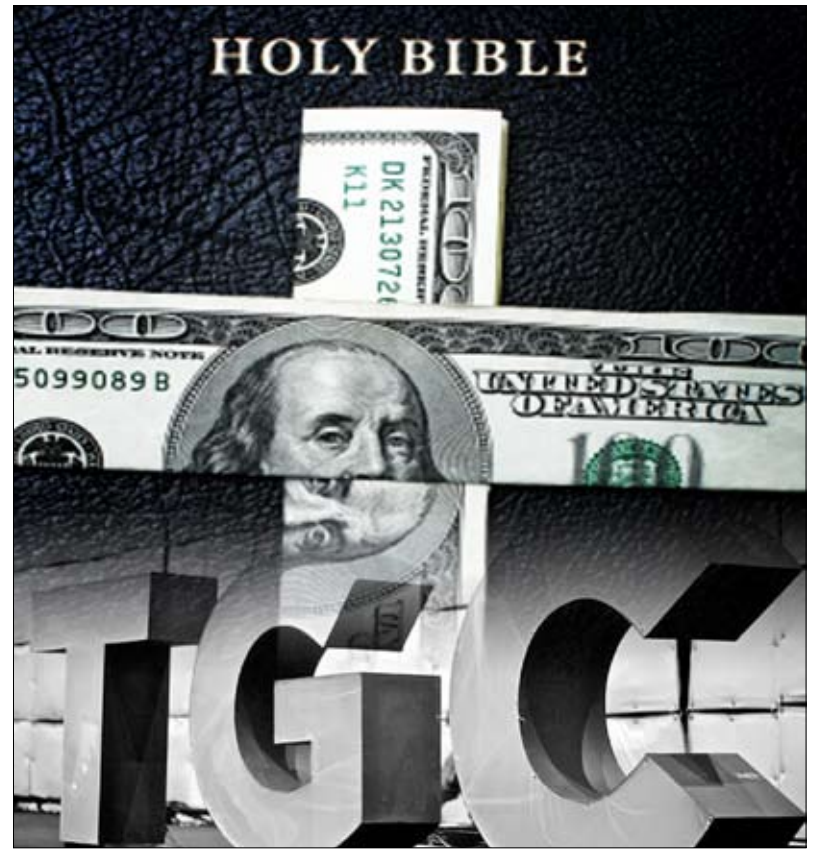
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영 신학의 주창자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사우스웨스턴침례교신학교 대학원 학감이자 기독교 윤리 교수인 존스(David W. Jones)는 바로 이러한 번영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결정적인 신학적 실수들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심각하게 경고한다(5 ERRORS OF THE PROSPERITY GOSPEL).

1.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이르는 수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12, 15, 17, 22장)은 번영신학의 신학적 근간으로 왜곡되고 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다고 번영신학의 신학자들은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를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언약의 내용을 왜곡시켜, 자신들이 주장하는 "건강과 물질"을 얻는 성경적인 기초라고 말한다.

포슨(Edward Pousson)은 자신의 책(Spreading the Flame, Zondervan, 1992)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번영신학에 적용되는지를 잘 묘사한다: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이며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축복을 이어받을 적법적인 계승자들이다...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한 상속은 바로 물질적 풍요라는 개념으로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독교의 복을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한정지어버린 번영신학에 대한 오류가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이다. 이미 코펠랜드(Kenneth Copeland)는 1974년, "번영의 법들(The Laws of Prosperity)"에서, "하나님

과의 언약이 이미 체결되었기에 번영은 바로 동 언약의 해당 조항이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상담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만명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ATS,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학생 자율권 부여 개혁 통해 성적 향상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3면 '역라미단 기도운동' 호소 목요기도운동 안내서 발간



16면 인/터/뷰 "한국의 열" 준비하는 윤임상 교수

2015 풀러 신학대학원 컨퍼런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약 1:4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교회가 강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후 13:9

#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 Healthy Pastors Healthy Churches

일시 2015년 6월 25일(목) 오전9시 ~ 오후 4시  
장소 풀러신학교 Payton 101  
주최 풀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박사원 & 소금과 빛 목회자 연구회  
강사 김세운 박사, 이정근 박사, 엄예선 박사  
신청 fuller201506@gmail.com  
회비 10불(점심과 자료집 제공)

김세운 박사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신앙신학 교수  
건강한 목회자: 사도바울의 예

이정근 박사  
유니온교회 원로목사,  
FTS 겸임교수, 미성대 명예총장  
건강목회현장: 함성목회 이야기

엄예선 박사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  
가정상담/한국가족학 교수  
건강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점들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염원하시는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사모님들, 신학생들을 초청합니다. 부디 오셔서 유익한 강의도 들으시고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시론

## 사스나무골에서(18):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사스(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지난 2002년 말 중국에서 발생한 후 동남아시아를 거쳐 전세계로 확산되며 지구촌을 공포로 몰고간 지 13년 만에, 이번에는 메르스(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유사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한국과 세계를 공황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원래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치사율이 사스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지면서, 신종플루 이후 또 한 번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 감염환자가 중동에서 입국한 후 한 달여 만에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가 벌써 154명에 이르고, 그 중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삼천여명이 전국에서 격리되어 진행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을 포함한 24개 병원들이 감염자로 공개되어 일부는 아예 문을 닫거나 환자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미 확진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심리적 두려움은 오히려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와 같은 인터넷 매체들은 이러한 막연한 공포를 증폭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포심은 집단적으로 역사할 때 더 가공할만한 위력을 갖고 다가옵니다. 성경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고 하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마 24:6)고 하였습니다. 잦은 지진과 화산폭발, 극심한 기후변화, 각종 전염병의 창궐 등이 어찌 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사인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며 설명해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즉 제림예수라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도관의 교주 박대선과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구원과 유병인, 신천지의 이만희 등이 모두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며 세상을 미혹시켜 온 대표적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특히 이러한 이단들이 창궐하였습니다.

둘째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난리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선 부족 간의 살육이 끊이지 않고 있고, 중동지방에서는 IS라고 하는 신종 무슬림 과격집단의 세가 점점 커져서 인근 시리아나 이라크의 거점 도시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차이나 해역에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을 앞둔 긴장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은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으로 동북아시아가 마치 화산폭발을 앞둔 것처럼 긴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가장 위험한 도발도 시도 중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가 난 이후, 네팔의 강진으로 만여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페루와 칠레 등의 환태평양 화산지진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화산폭발과 지진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산 안드레아 지진대가 지나고 있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한탄에 넘겨 죽게 하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의 사람이 식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사랑을 간직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세상 근심과 염려에 휩쓸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마저 다 식어져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학생 자율권 부여 개혁 통해 성적 향상

## WSJ, 오하이오 주 교육개혁 시스템 성공사례 보도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인근 서민층이 모여 사는 레이놀즈버그는 교육시스템을 개혁했다. 전통적인 교육현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다. 줄지어 늘어선 책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대학은 이제 마냥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 아니다. 고등학생들도 커뮤니티칼리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은 이처럼 상급하게 개혁되고 개선된 학생 자율권 우선의 교육 개혁시스템을 소개한다(Ohio School District Bets on Technology in Creating New Learning Model: Revamp has held down costs and put students in greater control of their education, officials say).

다. 반면 2013-2014학년도에 교재와 외부 서비스(고등학생들이 듣는 대학강의) 등에 투입된 금액은 무려 27% 늘어났다.

2014-2015학년도 초반에 교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교원노조는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늘어난 학급 규모 등을 우려로 제기했다.

고등학교 사회교사인 짐 콜리는 "교사들의 헌신을 교육구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더 적은 숫자의 교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형 일각에서도 자녀들이 너무 조금하게 너무 많은 공부할 하라는 요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중요도가 떨어진다 고 간주되는 교과목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레이놀즈버그 학교에 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와 실습형 지도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학습 모델이다. 레이놀즈버그 교육구는 교육 개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성적이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티나 토마스-매닝 교육감은 "내 손주들이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밖 학생유입 증가, 학생1명당 지출 주평균보다 6백불 낮아

학업성적지수 10년전 비해 7점 향상, 졸업률 3년새 10% 증가

과중한 업무량으로 교사들 이직률 급증 현상도

워싱턴 정계에서 미국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 각급 학교들은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영어와 수학 교육과정의 표준을 마련한 '공통핵심(Common Core)'이 미국 여러 주에서 지도 방법에 일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각 교육구들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나가는 '역량바탕 학습(competency-based learning)'을 실험하고 있다.

레이놀즈버그도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첨단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등 온갖 종류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 기반 학습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LA 통합 교육구와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이레벨-스테이츠빌 스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진화한 교육 개혁은 교육구내 고등학교를 4가지 카테고리(엔지니어링·디자인 특화학교, 예술 특화학교, 비즈니스·법 특화학교, 보건학 특화학교)로 나눴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과학, 언어, 체육 수업을 받는다. 고등학교 때 대학 수준 강의와 인턴십, 기술 교육을 받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엔지니어링·디자인 특화학교에

서 학생들은 평범한 강의를 대체하는 7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와 '크레딧 플렉스(credit flex)'가 대안에 포함된다. 크레딧 플렉스란 여행과 취미생활 등 학교 밖에서 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베터랑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 컨설팅업체 '게팅 스마트(Getting Smart)'의 CEO인 톰 밴더 아크는 "학생들은 기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체할 개선 있고 사례 깊은 대안들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레이놀즈버그는 점심 급식비 감면 혹은 무료 대상자가 전체 학생 가운데 50%를 차지하며 절반가량이 소수인종이다. 그러나 레이놀즈버그는 교육과정 혁신으로 명성을 얻었다. 경기침체 기간 동안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레이놀즈버그를 떠나는 가족들이 속출하면서 레이놀즈버그 교육구의 학생 숫자는 줄어 들었다.

교육 개혁이 추진된 이후 이 같은 트렌드는 역전됐다. 2011-2012학년도에 5,600명 미만이었던 입학 학생 숫자는 7,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레이놀즈버그 밖의 학생들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2003-2004학년도에 120점 만점에 92.6점을 기록했던 오하이오 주 학업성적지수는 2013-2014학년도에는 99.5점

으로 올랐다. 2013-2014학년도에 학생 1명당 지출은 8,600달러로, 주 평균인 9,200달러보다 낮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졸업률도 증가했다. 2010년 83%였던 졸업률은 2013년에는 93%까지 늘어났다. 아무런 고통 없이 이뤄낸 성과는 아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부단한 혁신을 일구내라는 요구를 받은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난 학년도 교사 이직률은 20%까지 증가했다. 평년도 교사 이직률이 6%에서 7%인 것에 비해 치솟은 셈이다.

교사 급여와 복리후생에 투입된 비용(지난해 레이놀즈버그 교육구 총예산 5,770만 달러 가운데 약 70%를 차지)은 제자리걸음을 했

다.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이자 인근 교육구 교사이기도 한 조 베제니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예전 방식을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 방식에서 약간 되돌릴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교육은 성적이나 데이터로만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고자 교육구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채용하고, 소셜미디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늘렸다. 레이놀즈버그 교육구의 트리샤 무어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낸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라왔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p>	<p><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 하나님을 '우주적 사환' 으로 전락, 요구와 필요에만 참여시켜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유지하는 단순한 "거래" 로 축소돼

(1면에서 계속)  
따라서 당신은 변영이 바로 지금 주어진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변영신학은 이러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갈 3: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를 인용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14절 후반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철저히 생략되고 무시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구원을 통한 영적 축복을 상기시켰지, 부를 이루는 물질적 축복을 말하지 않았다.

## 2. 예수의 속죄는 물질적 빈곤의 "죄"까지도 확장된다.

신학저널(Bibliotheca Sacra)에서 달라스신학교의 켈 사르레스(K. Sarles)는 어떻게 해서 정통의 속죄론이 변영신학의 육체적 치유와 재정적 풍요에까지도 남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는 코펠랜드의 신학적 명제를 정확하게 짚어냄으로 풀어간다.

"크리스천 삶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병들, 질병, 슬픔, 그리고 빈곤까지도 다 짚어지셨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2가지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1) 변영신학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하게 된다

실제로, 변영신학의 전도자 아반지니(John Avazini)는 TBN 프로그램에서 "예수는 '근사한 집', '대궐 같은 집'을 가졌고, '많은 돈을 세며' 심지어는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선포했다. 이처럼 예수의 삶에 대한 왜곡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탈선을 낳게 한다.

2) 따라서 속죄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어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건성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물질적 부유를 가르친다고 보기가 쉽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인

간이 구주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점이다.

1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장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 3. 크리스천들은 자선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주고 베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영신학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자선, 즉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변영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파위를 사용하는 능력"이라고까지 한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주는 것에 대한 강조는 단순한 바에 불과하다. 결국 로버트 톨톤(R. Tilton)같은 변영복음 전도자는 이를 "보상의 법"이라고까지 말한다. 톨톤에 따르면, 마가복음 10장 30절("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배배나 받되 박해를 견디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에 근거해, "크리스천들은 타인들에게 자선을 반드시 베풀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 따라서 자선과 보상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끝을 알 수 없는 물질의 변영이 따르게 된다"는 논리다.

코펠랜드의 아내 글로리아는 한술 더 떠서, 구체적으로 '보상의 법'을 말해준다. "10달러를 주면 1,000달러를 받게 되고, 1,000달러를 주면 10,000달러를 받게 되며...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복음이다."

변영신학에서의 "자선"은 따라서 분명하게 잘못된 동기로부터 시작된다. 도박에서 판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더 걸듯이, 많이 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눅6:35)라고 말씀하셨지만, 변영신학은 주면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 4. 믿음은 변영으로 이르게 하는 자기 발생 영적 힘이다

정통 기독교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뢰를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변영 복음의 교사들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르친다. "믿음은 영적 힘이 영적 에너지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힘은 영적 법칙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변영을 믿는 자에게 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결과를 얻는 열쇠이다." 물론 개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기도들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영 복음은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허락하시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간구를 들어주시게 된다는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져 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달라는 인간이 주역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변영신학은 철저하게 기도에 대한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점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4:3)."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기도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도, 우리의 모든 간구들은 하나님께 알려줘야 한다("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4:6). 그러나 변영 복음이 말하는 기도는 인간의 욕망에 너무 강조를 두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기적이고, 수박 겉을 훔치는 기도에 불과하다. 또 인간의 욕망에 강조를 두게 되면 하나님마저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결론으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변영신학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에 잘못된 복음을 말하고 있다. 만약에 변영신학이 참되다면,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며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모든 것들에 대한 척도가 된다.

변영신학은 아브라함 언약, 속죄, 자선, 믿음 그리고 기도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순한 "거래"로 아주 축소시켜 버렸다. 1990년 신학자 제임스 고프(James Goff)는 크리스치니 투데이 기고에서 분명하게 언약에서 거래로 왜곡, 축소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주적 사환/급사'로 전락돼, 당신의 피조물들의 요구와 필요에만 참여하신다". 변영신학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적절하고 비성경적으로 완전히 변형시켜 놓았다.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자존심의 균형잡기

목사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경망스러워 보이고, 지나치게 내세우면 교만해 보이거나 접근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자존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평생 자신을 향해 던진 세 가지 경구가 있다. 그것은 '건방 떨지 말자, 수다 떨지 말자, 공상떨지 말자'다.

성공목회자로 인정받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대항화될 때, 이런 저런 청탁이 밀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목사도 사람인 탓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마치 인기인이라도 된 것처럼, 황제의 권좌에 오르기도 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다. 그뿐인가. 아무개 목사 만나는 것은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 인의 장막이 너무나 두껍다. 인의 뒷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건 안된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막무가내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 대다수의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귀찮은 일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상이 누구든 건방진 태도로 비칠 필요는 없다. 목회자가 서 있는 자리는 건방 떨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수다 떠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든지, 이말 저말을 분별없이 옮긴다든지, 교인들과의 상담이나 가정사를 비판적으로 전언한다든지 그리고 남녀노소를 구분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목사의 품위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교인 상담을 통해 술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다. 그 가운데는 직답을 요하는 상담도 있었고, 함께 고민하고 아픔을 나눠야 하는 비밀도 있었다.

목사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물론 침묵이 항상 금일 수는 없다. 그리고 목사는 침묵, 묵상으로 나날을 보낼 수도 없다. 그러나 목사의 수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내조자의 수다 때문에 교인 간에 시시비비가 벌어지면 그 뒷감당은 목사가 해야 한다.

목사가 공상떠는 것도 옳지 못하다. 돈이 모자라 못 먹고, 입지 못하고, 자식을 뒷바라지 제대로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공상까지 떨면 목사의 자존심은 실종되고 만다. 돈은 인격과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다. 가룟 유다는 3년간 돈 관리하다가 시험과 울무에 빠졌다. 그런 면에서 교회제정은 투명하고 공정할수록 좋다. 필자의 경우 교인들이 특별 선교비에 써달라고 돈을 줄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썼는가를 상세히 밝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다.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 경계하면 다 거치지 못하고, 피하면 비켜가는 것이 유혹이다. 그러나 기회를 만들고 구실을 찾으면 그럴싸한 핑계가 많아진다. 예수님의 경우는 빵, 권력, 명예를 빌미로 다가서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다.

충신교회 목회를 내려놓기까지 35년, 필자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격려와 위로가 목회의 윤행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에게 목회자로서의 허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속내를 다 털어 보인 채 속된 강정처럼 굴고 싶지 않았다. 목사와 교인은 항상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거리를 두었던 것처럼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목사에게 잘할수록 거리가 필요하다.

호칭도 친하다는 핑계로 오빠, 형님, 누님 따위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처럼 살벌한 목회상황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안하는 게 유익하다. 세상 떠난 한국교회 원로목사님은 "목회, 살얼음판 걷기야. 외출타기야. 늘 조심해야 돼"라는 유혹을 남겼다. 자존심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사고와 행동이 된다면 멋지고 당당해진다. 그러나 자존심이 자신의 약점이 나 허물을 미봉하고 감추려는 수단이 된다면 추해진다.

목사의 자존심은 자신이 몇몇할 때 정당할 때, 부끄러운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목사다울 때 성립된다.

(“완주자의 노래-40년 목회이야기” 중 발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한 사건들의 가정법에 대하여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시 오는 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고, 제일 강조되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재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가정해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휴거) 받게 된다.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죽은 성도들이 무덤과 바다와 광야에서 나와 영광스러운 몸, 영체로 놀라게 변화하여 먼저 부활하고(살전4:16),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

들은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하자마자 순식간에 변화되어 들림 받아(휴거)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연합하게 됩니다(살전4:17). 물론 이때 큰 난리가 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들림 받아 올라가고, 불신자들과 미성숙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남아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 2.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고, 언젠가 불시에, 예고없이, 도적같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

을 뜻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며 믿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크게 놀랄 것입니다. 이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아닐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크게 놀라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 3. 구원받을 기회가 다 끝난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라고 했습니다. 오늘

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시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을 기회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구원 받을 기회도 다 끝나고 맙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심판 전에 전도할 때 농담으로 여기고 코웃음 치고 조롱했으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애걸복걸하며 통사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내일 공중재림하시면 구원 받을 기회는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죽기 전 살아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망하며 학수고대하는 마리아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푸/른/초/장

허상회 목사

(뉴저지 성도교회)



우리들이 사용하는 전력 중에 원자력은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서 각 가정과 사업체 공장 등에 공급하여 큰 동력을 만들게 합니다.

1.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통과 역경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가 떨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나의 진솔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

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2.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미가 같든지 성격이 비슷하든지 삶의 환경이 비슷하면 상관없지만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들

함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며 능력 받는 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진실한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며 가정을 바꾸고 자녀를 바꿉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3.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위협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 받고,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8면으로 계속)

능력 받는 사람들

(행 4:23-31)

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았습니. 자기들의 신앙과 복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위협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 받고,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8면으로 계속)

은 말을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소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승리를 만드는데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이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동하여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거룩한 종예수를 적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들이 있지만 저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위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예배 반주자 모집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앙고백이 뚜렷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신 피아노 전공자를 찾습니다.
\* 지원자격
1)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
2) 미국 체류 및 고용에 하자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이력서
\* 제출하실 곳: ocpc91@gmail.com
문의전화: (360) 456-1636
주소: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1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유럽 \$190, 남미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영어, 목사, 평신도
배달주소, 전화/Fax, 발송본 이름, 전화번호/Fax,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동성애자 역사가와 인류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CDC의 HIV 에이즈 감염 통계!

동성애자들도 전도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평상인과 같이 따뜻하게 반기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적 행위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힘을 다해 죄와 싸우고(히12:4), 죄짓는 것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실 때는 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할 때 결국 국 죄악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갈 뿐 아니라(약1:15), 최악의 상태는 우리도 루시퍼전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자들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죄"라고 정한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도 Crime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사람들의 영, 혼, 육신까지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는 이미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적 행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않은지도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동성애 운동가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사역자, 성도들까지 속아 넘어간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서 성도들이 떠날까봐, 교회들이 점점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까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성경까지 "Queen Bible"이라는 동성애 성경책을 만들고, 이제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성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크리스천들로 인해 자신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도 자기(동성애자)들을 받아주시는데, 교회가 동성애를 "핍박"하고 있다는 헛된 주장으로 성도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들과 모든 사람들이 꼭 보고 들어야 하는 소식과 사실들도 있습니다.

■ "유럽의 대법원(Highest Court)은 더 이상 동성결혼 합법화 인정하지 않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과 결혼을 합법화 했던 유럽에서 2014년 8월 유럽의 가장 높은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동성결혼으로 맺어진 사회/가정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동성애자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또한 동성애자들 중 양심있는 역사

류역사속의 동성애 역사를 아는 동성애자들일수록,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곳은 크리스천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크리스천 교회에서 동성애가 인정받으면 그것보다도 더 파워풀하고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요.

■ 무신론자이자 동성애자의 교회를 향한 따끔한 경고 몇주전에는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을 때, 무신론자이자 동성애 게이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history)들과 인류학(anthropology)자들까지 "동성애는 선천에 의한 성향이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innate)은 그 어떤 역사적 자료에도 인류역사상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동성애 성향은 단지 옛날부터 부유층이나 사회나 문화 속에서 흘러나와 부유층과 자극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오락처럼 여겨지던 성오락으로, 서양에서는 150년 전에 사회에서 결혼에 싫증이 나거나 통상적인(routine) 라이프스타일에 싫증이 나거나 할 때, 또 다른 삶의 자극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문화가 형성되면서, 자기들끼리만 주고 받았던 성적오락 성향이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정치와 손을 잡으면서 "동성애"라는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비한 삶처럼 볼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 역사가들에 의하면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은 아니지만 아주 오랜 역사동안 사회 속에 늘 있었던 것으로 동성애자들인 자신들의 의견으로는 동성애 자체를 이상하고 비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운동가들은 그런 인

"교회들이 도덕적인 것과 올바른 것들을 사회에 알려주고 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동성애자지만 국가전체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스타일을 알면서도 왜 교회들이 침묵하거나 아니면 마치 문화에 뒤쳐진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사과까지 하면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를 하고 있는지...내가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교회의 무너짐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늘 있듯이 동성애 라이프스타일은 사실상 정신적, 육신적, 사회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 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동성애 미국의 가장 유력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통계들이 발표하기를 지금도 가장 많은 HIV 감염자들은 동성애자들이며, HIV를 고치기 위해 미국에서는 12.1비리언 달러를 연 구비로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으니 절대로 자연스럽고 건강하지는 못한 것이지요.

-새로운 HIV 감염자의 수(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의학통계)

미국에서 게이나 양성애자,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비율은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2% 중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도 끼여 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13-24세 중 HIV에 새롭게 감염된 환자의 72%가 게이이거나 양성애자였으며 전체 게이와 양성애자 중 30%가 새로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2010년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HIV 감염자의 56%가 게이와 양성애자들인데 그들 중에는 주 사용 마약을 사용하는 양성애자들도 있다.

-2010년 미국에서 게이나 양성애자의 약 63%가 HIV에 새롭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그룹은 새로 감염된 전체 남성 중 78%에 해당한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새 HIV 감염률은 13-24살 사이의 젊은 연령층의 게이나 양성애자 남성에서 22%가 증가했으며 전체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중 발생률은 12% 증가했다.

-게이나 양성애자 남성 중 백인 게이와 양성애자들인 경우 2010년 새 HIV감염자의 38% (11,200명)에 달한다. 백인게이나 양성애자인 남성 중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그룹은 25-34세 연령대로서 29%를 차지한다고 한다.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게이나 양성애자 남성 중 흑인게이 미국인은 새 감염자의 36%(10,600명)에 해당했다. 이들 그룹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13-24세 사이의 젊은 그룹이 수적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새 감염자 중 흑인게이 미국인이며 게이거나 양성애자인 13-25세 연령대의 남성의 비율은 20%가 증가했다.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게이나 양성애자 남성중 라틴계통 남성의 경우는 감염률이 약 22%(6,700명)에 해당하며 역시 25-34세 사이의 발생률이 39%로 가장 높았다.

이제 미국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합법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 6월에 가려집니다. 끝까지 "말뚝돌 기도운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의 미래가 우리들의 기도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함에 달려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들은 tvnext.org나 Facebook에 가서 tvnext.org를 찾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isp0316@gmail.com

Q: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4천이란 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는 이 상징수를 색다르게 푸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제철일안식교에서는 안식교만이 14만4천에 속한다고 말하고 여호와와 종인은 증인대로 자기들만이 14만4천에 속한다고 말하고 신천지는 자기들의 수가 14만4천이 차면 교주 이만희처럼 죽지 않고 육체 영생을 하여 신천지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현재 80이 넘었는데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계7:1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 14만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의 바람은 전쟁입니다. 땅 사방에 부는 바람은 세계 제3차 대전이며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 1/3이 죽는 무시무시한 핵전쟁입니다. 이 제3차 대전인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전세계의 패권을 잡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왜 전쟁을 억제하느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14만4천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 큰 전쟁인 유브라데강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효인 14만4천의 수효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4만4천은 누구를 말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들 14만4천은 유대인 구원의 수이거나 아니면 후삼년만에 전도할 유대인 구원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인의 구원의 수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천국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해석이 옳지 않습니다.

이 14만4천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화려한 유명한 신학자인 크레다너스는 14만4천은 선택수 12x12x1000(총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2(구약의 택한 백성의 대표인 12지파)x12(신약의 택한 백성의 대표인 12사도)x1000(많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모두 이 14만4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은 필수과목입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2015년 6월 29일(월) ~ 7월 9일(목)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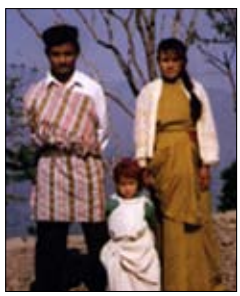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13일 (협동동인교회) 남부시찰 재정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생명수련회(김연중목사) 9~11일 (협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광명대학교, 대학원 체류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1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2~24일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합동)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육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부탄의 레프차(Lepcha)



약 3만 명의 레프차인들은 부탄의 남서쪽 울창한 밀림에서 살고 있다. 부탄은 세계 유일의 불교 왕국이며 이 작은 국가는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다. 또한 부탄은 "천동 용의 땅"이라는 의미의 "Druk-Yul"로 잘 알려져 있다.

kim은 레프차의 근원지다. 그들은 농경지가 거의 없는 부탄의 남서쪽 지역의 계곡과 구릉지역에서 거주해왔다. 레프차 같은 이주민들은 히말라야지역의 중앙부로 들어와 사는 것이 금지되어 이 문제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비록 레프차인들은 부탄의 시민임을 보증 받고 있지만 지독한 인종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레프차는 네팔인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탄에서 사용되는 티베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레프차 언어로 말하며 대부분 문맹이다.

#### 삶의 모습

레프차 공동체는 깊은 계곡 속에 있다. 산지의 우거진 숲과 계곡속의 쌀 경작지는 그들의 생계에 큰 뒷받침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화전법을 이용해 경작한다. 일부는 커다란 숲 지역에 거주한다.

또한 레프차인들은 목공품이나 방직업, 방직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한다. 남녀 구별 없이 남자가 방직을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천을 짜며 또는 반대로도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은 들녘에서 나란히 일한다. 또한 부탄의 시골 주민들은 세금을 전혀 안내거나 약간 지불하지만 지역 봉사에는 임금 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계곡의 공동체와 근대 가족공동체들은 레프차의 오랜 관습을 좇아가는 유일한 문화의 한 축이다. 이

러한 레프차들은 대부분 흩어져 살고 있지만 때로 그들의 경작지 근처 우거진 숲에서 두 세 가정이 함께 모여 정착하기도 한다. 집들은 대나무 껍질을 정교하게 엮고 짙을 엮어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프차의 가족 단위로 변화했다. 한 세대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에서 시작하곤 한다. 그 후 아들이 결혼하면 그들의 신부를 집으로 들여 가족이 확장된다. 아들의 자녀들이 자람에 따라 그는 부모의 집 근처에 자신의 집을 짓고 이사를 한다.

레프차인들은 신사적이고 살인이나 절도 범죄가 거의 없이 평화롭게 산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공격은 없어야 하고 모든 다툼은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다.

#### 신앙

레프차인 대부분은 스스로 불교인이라고 여기지만 두 개의 커다란 종교철학 즉 불교에서 유래한 '라마교'와 민속종교인 '뎨(Mun)' 종교를 좇아 행한다. 비록 모순된 것이 있어도 이 두 신앙은 동시에 믿어진다.

뎨 종교는 조상신과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다. 동물을 바치고 귀신과 대화하는 것은 영혼을 달래고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되는 악귀로부터 악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또한 히말라야 빙하기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에티(Yeti, 무시무시한 눈사람)"는 사냥꾼의 하느님으로, 모든 산악지역의 주인으로써, 모든 숲을 지은 조물주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마이스트들은 동물을 바치는 것은 지독한 죄악이라고 한다. 그들의 종교는 환생(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계속되는 반복)에 근거하고 있고 그들은 현재의 수고다음의 인생에 상이나 별로 나타낸다고 믿고 있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수질오염은 부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의 하나로 시골 지역의 70%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대부분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부탄은 1974년까지 관광을 위한 개방을 거부해왔지만 매해 방문자의 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문화"라 불리는 군주국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위성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교권 정부는 외국 종교나 서방 종교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종보기도는 부탄이 복음에 열리도록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미군내 동성애자 차별금지 최초 명문화

미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최초로 명문화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국방부 강당에서 열린 '미 국방부 강령 성소수자(LGBT) 프리드 행사'에서 미군내 기회균등정책에 동성애자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이 11일 전했다.



개정되는 정책에는 기존의 인종과 종교, 국적 외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됨으로써 동성애자 군인 등이 다른 동료들과 진급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이 정책은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사실상 막아온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이 4년 전 폐지된 이후 나온 것으로 군내 동성애자 인권 개선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카터 장관은 연설에서 "국방부는 우리가 옹호하는 가치인 만인에 대한 평등을 지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는 '실력주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책무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가방어에 그들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다양하고 열려 있으며 관용적인 젊은 미국인들을 뽑아 훈련시킴으로써 미국이 풍부한 다양성을 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은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군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군에 복무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할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 교계 "동성혼 허용되면, 처벌감수 불복종"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경우, 징역 등 어떤 형벌도 감수하면서 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하고

10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전통결혼 수호자들의 서명"(Pledge in Solidarity to Defend Marriage)에는 현재 4만 2천 명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명한 상태며, 앞으로도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서명자들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포커스온패밀리 전 대표이자 라디오방송 Family Talk Radio 설립자인 제임스 뉘슨 박사,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콘퍼런스(NHCLC) 설립자 겸 대표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미국을 격정하는 여성들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페니 낸시, 서던복음주의신학교 총장이자 크리스천포스트 편집자 겸인 리처드 랜드 박사, 국제기독교언론협회 대표 겸 CEO 제리 존슨, 비전 아메리카 액션의 대표 리 스카버로 박사 등이다. 이 서명은 리버티 카운슬 액션의 의장인 매튜 스테이버와 가톨릭 온라인의 편집국장인 케이스 프루니어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청원에 서명한 이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모든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종교 자유를 포함해 모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포함해 어떤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이 만든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www.defend-marriage.org에 따르면, 이번 청원 및 서명운동은 뉘슨 박사와 스카버로, 그리고 스테이버가 목회자들과 함께 '비전 아메리카 화상회의'를 하던 가운데 제안됐다.

스카버로는 화상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도덕적·성경적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할 경우)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드레드 스카' 판결만큼, 올바르지 않고 비극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40여년간 목도해온 시대의 트렌드와 문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런 날이 와서 기독교인들이 세속 문화와 법원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미국에 분회파 당시와 같은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디트



리히 분회파는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대항하다 죽임을 당했다.

스테이버도 화상회의에서 스카버로의 발언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는 웨딩사업 종사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맞서거나 뿔뿔이 흩어져 목이 매달리는 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지금의 때는 분회파의 때와 같고, 동성애 옹호자들은 우리를 모래알처럼 흩으려 하겠지만, 동성결혼이 법원에 의해 합법화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맞서야 한다. 특정한 표적이 되면 그들과 함께 연대해 맞서야 한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쳤다.

온라인 청원 및 서명운동 성명서에서 이들은 "인류의 역사는 정부가 동성결혼자들에게 동등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 재정의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경우, 경찰력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훼손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결혼과 인간의 성을 재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어진다"며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며,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종교 자유는 미국에서 가장 우선되는 자유"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청원 및 서명 사이트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시민운동의 대부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킹 목사는 "빙햄턴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불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했었다.

성명서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종교나 계시(성경)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에 기초한 것이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자연질서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상위의 법인 도덕률과 충돌하는 불의한 법을 인정할 수 없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은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헌법이 도덕법과 배치될 경우, 창조주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이 선을 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달 중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 30대 세 자매, 자식 9명 데리고 IS행

10대들의 잇단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담에 이어 이번엔 성지순례를 떠났던 일가족이 IS 점령지인 시리아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국이 충격에 빠졌다. 시리아행을 준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도 계속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15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웨스트요크셔주 브래드포드 지역에 살던 30대 세 자매가 3-15세의 자녀 9명을 데리고 사라졌다면 시리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큰언니 수그라 다루드(34)는 3-15세인 자녀 다섯명을, 둘째 조흐라(33)와 막내 카디자(30)는 각각 5세와 8세, 5세와 7세 자녀 둘씩을 데리고 지난달 28일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이들은 지난 11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9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AFP통신은 예비 수사 결과 이들 중 최소 10명이 사우디 메디나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행 중 5세와 8세 어린이는 같은 비행기에 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메디나-이스탄불 구간은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입국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는 줄만 알았던 남편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가족 측 변호인 발랄 칸 변호사는 전했다. 칸 변호사는 "남겨진 가족들은 무력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서 "시리아에 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 자매의 남자 형제가 시리아에서 IS 전사로 활동하고 있어 그를 만나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 측은 덧붙였다.

BBC방송은 "시리아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12명의 가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곧 나올 것으로 예

상된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영국 웨스트요크셔 경찰이 외교 당국 및 터키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영국인들의 IS 가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IS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을 6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 독일서 동성결혼 지지세 탄력, 상원 결의안 채택

독일 연방상원(분데스라트)이 동성애자 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을 지지하고 나섰다. 상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연방 정부에 입장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독일 전역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똑같은 제도적 평등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성부부나 커플이 누구라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어느 한 쪽의 자녀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집권 다수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중심의 연방정부는 상원의 이번 결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개 연방주 3-6명씩의 대표 총 69명이 자기주 이익을 대변하는 독일 상원에서 하원과 달리 CDU의 연방정부 대연정 소속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세력이 CDU를 오히려 압도한다. 따라서 상원의 이번 결의는 동성애자 결혼과 입양 이슈에 관대한 SPD 때문에 가능했다.

SPD는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는 정도에서 CDU와의 정면충돌을 피했다고 독일 언론은 분석했다. 독일 상원은 법안 발의권, 정부가 제출한 법안 심의권, 하원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재정·행정 등 각 주의 이익에 직결되거나 기본법(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하원 법안에 대한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은 최근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이 이슈가 부상한 상태이지만, 2013년 대연정 출범 협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법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미국 등 압력에 국제구호단체 활동재개 허용

파키스탄에서 국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지부 폐쇄 처분을 받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린이 현지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세이브더칠드린의 지부 폐쇄 명령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세이브더칠드린 측도 발루치스탄 주와 키베르 파크툽과 주 등 반군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부 지역 사무소를 철수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션은 덧붙였다.

파키스탄이 세이브더칠드린의 활동 재개를 허용한 것은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내무부의 한 관리는 "이들 국가가 (국제구호단체를 탄압하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당국은 세이브더칠드린이 설립허가 규정을 어기고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했으며 이슬라바드 등 각지의 사무소를 폐쇄했다. 당국은 국익침해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세이브더칠드린이 외국 정보기관 활동과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앞서 2012년 파키스탄 정보기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도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찾기 위해 '가짜백신접종을 한 파키스탄인 의사 사킵 아프리디가 세이브더칠드린과 관련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세이브더칠드린 측은 아프리디나 CI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보고서가 나온 이후 외국인 직원이 모두 출국해 현재 파키스탄에는 현지인 직원 1천200명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터



저자: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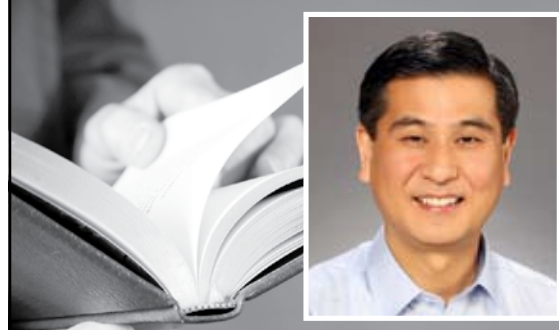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부 (6) 변증 교부에 대한 자료

언론을 장악하는 힘은 정치적 권력과 비례된다. 독재 정치는 진실을 숨기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을 일삼는다. 국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지만, 정치적 봄바람이 불어와 민권을 보장하는 정권으로 바뀐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들과 교회의 관계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교회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유난히 교회를 탄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핍박 받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평가가 찾아온 후에야 알려지게 된다.

질문: 로마황제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에 '변증교부들'이 활동하였다면, 후대교회가 그들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어떻게 접할 수 있었을까?

### 1) 교회역사를 보면...

#### 초대교회의 핍박

예수의 죽음과 초대교회가 탄생한 정치적 배경에는 로마제국이 있다. 로마의 황제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절대적인 힘을 지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들의 정치력과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기독교가 탄생하였을 때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성경을

쓰지 않았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로마정권을 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의 고유문화와 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지니려 하였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가 로마황제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서의 자리를 굳혔다는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준다. 초기에는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파생된 종교 집단으로 이해하였지만, 점차 기독교의 독특성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과 '사도교부들'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다. 로마황제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정치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대상으로 낙인찍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 근본적인 동기가 정치적이었던 것이다. '사도들'과 '사도교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교를 자청하였다. 이미 예수께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예고하였고, 순교가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어 사역하

던 '변증교부'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정권을 향해 기독교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외치는 외로운 소리가 되기를 원했다. 순교를 피하기 위하여 서가 아니었다. 로마황제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여 오해와 편견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

므로 '변증교부'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리는데 주력한 것이다. 그들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이지만, 부당한 오해와 핍박으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도 교회를 책임진 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확신하였다.

몰이한 사실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유세비우스는 초대교회는 물론 전체 기독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닌 4세기초에 초대교회가 종교적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바뀌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유세비우스는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하여 그 지방 교회의 감독으로 활동하던 팜필루스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는 자신을 '팜필루스의 아들'이라는 자칭하였는데, 그만큼 스승로부터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의 스승이 소장하고

마황제가 교회역사가에게 로마제국이 지니고 있는 역사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로마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길고 긴 시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직접 살피고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세비우스를 통하여 교회의 핍박 시기에 활동했던 '변증교부들'의 행적과 글을 접할 수 있다.

### 2) 성경이 보인다 - 이사야 41 장 8-16절

역사는 직선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의 역사를 섭리하셨다. 그가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로마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할 당시, 4세기초에 기독교인들에게 하락된 특권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에 능통했던 유세비우스는 역사를 바라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가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다. 그가 특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구절은 이사야의 예언이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사41:11).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고 있다. 역사가의 눈과 손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간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는 진행

### 유세비우스, 로마황제 도움으로 초기교회사 저술

다. 그러므로 '변증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마황제들의 교회핍박의 역사이자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부당한 오해와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는 아주 뽕뽕 종교로 전락되어 있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유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나누는 사랑과 친교를 근친상간으로 매도하였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일 뿐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성도들이 모여 성만찬을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러

#### 최초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한 초기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대하여 살펴본바가 있다. 그는 세속역사가로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역사서를 적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미비하였다. 그렇지만 후대에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사건들을 기록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일까? 그는 일반적으로 '교회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Eusebius, 260-340)이다.

유세비우스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역사가였다. 그 중에서도 324년경에 출판된 '교회사'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 책은 단순히 처음 기록된 교회역사라는 사실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가 3세기말부터 4세기초에 살았던 인

있던 대단한 분량의 장서를 이용하여 성경에 능통하게 되었다. 물론 그도 전통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만, 초대교회의 뿌리와 흐름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지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가 성도의 입장에서 핍박받는 교회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값진 일이었다. 특히 그의 스승 팜필루스가 순교를 당하였기에, 감옥을 자주 방문하여 스승 불리라는 유세비우스(Eusebius, 260-340)이다.

그가 기록한 책 중에 "콘스탄틴의 생애"가 포함되어 있다. 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로마 황제와 가까이 지내며 역사가로서 얻은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로

의 상처 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교회에서 한부모 가정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런 면에서 점점 늘어나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이제 교회 교육이나 사역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우리 안의 양을 두고 길을 찾아나서는 심정을 따라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 한부모 가정을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가정사역 칼럼

### 한 부모가정을 위한 사역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자녀가 있으면서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 그러한 한 부모 가정을 그동안 편부모 가정으로 불려왔다. 편부모 가정의 '편'은 치우치다, '반쪽'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한 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한'을 하나(Single)로 인식해 '부모가 한명인 가정'이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싱글 데디, 싱글 맘이 등장하고

한부모 가정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심리적으로 분노, 상실, 실재감,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끼며 경제적으로는 수입의 축소와 함께 곤란을 겪으며, 자녀의 이상행동,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자녀양육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또한 이면현실에 부부 두 사람이 벌어서 가계를 꾸리기도 뻔뻔한데 혼자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려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 주변의 싱글 맘들은 two, three job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일터에서 돌아오면 집에서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곧 힘이 없는 일상을 지낸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싱글 데디의 고초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한 부

모 가정의 자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 인성 실패자, 인생낙오자로 인식해 가족들과 그리 가깝지 않은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싱글패밀리 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 국경공휴일 또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Thanksgiving,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이다. 가족과 그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연휴에 느끼는 외로움은 너무도 큰 것이다. 부당한 차별에 대해 지원하고 자립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 부모들을 교회 교역자나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이혼은 죄다', '이혼 후 배우자

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혼하면 그것도 죄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정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구역예배나 친교모임에 싱글맘이 되어 참석하면 남의 남편을 탐하는 여자처럼 생각해 관계를 회피하기 일쑤라고 한다. 심지어는 상담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목사 사모님으로부터 목사님을 유혹하려 왔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어느 누구보다 교회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지금 교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다.

교회 내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KCCCA)

이민 목회현장에서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며 나아가 교회연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해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 17차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신: 전각교단장, 증경회장단, 각교협회장과 증경회장, 공인된 선교단체장

제목: 제17회 미주 기독교 총 연합회 정기총회 건

- 1. 일 시: 2015년 7월 6일(월)5:00pm~8일(수)10:00 am
- 2. 장 소: Atlanta 잔스크릭교회 (이승훈 목사 사무) 7830 McGinnis Ferry Rd, Suwanee, GA 30024 ☎ 770)623-0004
- 3. 등록비: \$100 (당일지참)
- 4. 참 조: 등록처: 최낙신 목사(404-488-6868) 박형우 목사(704-281-0080) 비행기 스케줄 보낼곳 E.mail:hopeppaul@gmail.com

#### 5. 등록접수마감

- 1. 교회협의회의 의무금 및 임원 의무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항공비는 본인부담이며 체제비는 2박3일간 본 준비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
- 3. 등록된 분에 한하여 대의원 관을 부여합니다.
- 4. 임원회 모임은 2015년 7월6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총회

K.C.C.A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서기 심평중 목사



오직 예수이름으로 허락 받았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 가능하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3)고 하셨다. 적절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핸드폰에 비유해 본다. 핸드폰은 개인 이동통신 수단으로, 이런 통신혁명이 오게 될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다. 핸드폰이 언제나 다른 사람과 연결 해주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직교할 수 있는 기도는 신자가 갖는 가장 좋은 통신수단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대표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3)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하기를 "빛보다 더 빠른 비사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른다"라고 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뇌리를 스쳐가는 영감과 동시에 "그래, 빛보다 더 빠른 비사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가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천국까지는 72억광년(1광년은 빛이 1년 달리는 거리)이나

상사태에 직통으로 상황을 주고받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핫라인을 설치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수록 능력이 있고 신앙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속담이 있듯, 부모님이 계시도 대화가 없으면 고아와 같

핫라인이 언제나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주신다. 미워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려고 가정의 우환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신다. 많은 신자들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기도한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깊이 통하는 기도를 해보라.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여 사람들이 감동받아 '아멘' '아멘' 해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주님과 통해야 한다. 한나도 통했고, 엘리야도 통했다(왕상18:36-46). 주님과 통하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6월의 '열음' / 신령스런 사람

나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자신을 알게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다. 자신에게 눈 뜬 사람, 그래서 바로 자기 속에 신성이 있음을 깨닫는 자, 그 자가 진정 신령스런 사람이 아닐까.

벌써 6월이 시작된다. 점점 짙어지는 산들과 커가는 나무들이 그리고 더 가벼워지는 옷차림들이 여름이 왔음을 알려준다. 여름은 '열음'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곡을 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열음'이란 춤을 만나면 춤을 추고, 슬픔을 만나면 슬퍼하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이 되고, 노인을 만나면 노인이 되는, 그렇게 되고 또 되어 보는 삶이 아닐까?

자기 몸인데도 자기 맘대로 못하고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일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몸에 갇히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죄성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쪽 '담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걸어가고 있는 길도, 또 가슴이 시키는 일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 쪽 담이 버린 생각 때문에, 사로잡힌 감정 때문에, 도무지 '열음'이 없는 갑갑한 우리네들...

이제 6월의 '열음'을 맞는 우리들 속에 옳다는 것에, 안다는 것에, 감히있지 않고 지금 나의 가슴을 알아차려 주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뇌에게 물어봐 주고, 내 몸속에 갇혀 있는 질병도 슬그머니 내어 주면서, 이런 '열음'의 6월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 고맙다고 말하며, 그렇게 맞이하는 6월이 되면 좋겠다.

어둠이 가고 아침이 오면 그 아침을 열어주는 분과 함께 그분의 숨결을 알아차리면서 주제가 분명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신령스런 사람이고 싶다. 늘 떨어서 후회스럽고, 짜증나고, 살 맛을 잃어가는 그렇게 흐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살고 싶고, 힘을 다하여 알고 싶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나의 디자인이 '열음'으로 맞으며, 나의 신령스러움을 향해 가는 길이 진정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리라.

사람들은 하루도 못가는 화장을 하는 데는 온 신경과 정성을 쏟으면서도, 평생 가는 표정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을 시간조차 없다고 웃음을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 그냥 웃을 일이 있을 때 잠시 웃어만 주어도, 실수 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눈만 한번 감아 주어도, 평생 가는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뀔 텐데... 그 힘든 급식은 팔각 팔각 배고픔을 참아가며 잘 하면서도, 왜 이 표정하나 바꾸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 표정하나 바꾸면 평생 좋은 인상, 환한 얼굴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다. 우리의 표정은 그냥 얼굴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뀌어야 따라서 바뀌지는 신령스런 일이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리라.

바람을 보고 웃고, 햇살을 보고 웃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웃고, 자기를 보고 웃고, 두려움을 보고도 웃고, 실패를 보고도 웃고, 아이를 보고도 늙음을 보고도 웃고... 그렇게 웃고 웃다 보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웃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 하는 감각으로 '늘' 사는 진정한 '오늘'을 맞는 자의 신령스런 삶이리라.

친구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이야기조차 막혀 행복의 감각을 잃어버린 가슴이 외로운 우리네 가족들,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것을 진직 알아 그들을 위해 무엇을 풀을 줄 아는 자는 진정 신령스런 사람이리라. 인생을 살다가 때론 비가 되어도 혹은 눈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물'임을 아는 지식을 놓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 앙금이 가라 앉듯이, 그 물줄기가 평평 흘러 나가는 것이 사랑이요 자유임을 만끽하는 신령스런 사람으로 찬란한 6월의 '열음'을 맞이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인 기도는 예수이름으로만 가능  
말씀이 모순돼 보일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 일어나

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가 있다. 반면 불신앙은 하나님과 대화5가 단절된 상태다. 하나님과 대화 없는 자가 바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들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아서 진정한 대화의 채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 채널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전화기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

언젠가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책에서 읽었다. 그는 말

결린단다. 그렇다면 천국까지는 빛이 72억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72억년을 달려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된다.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의 기도에도 이미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빠른가? 물론 천국이 72억광년 걸린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또 기도응답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아도 항상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특권이 아닌가. 예수 믿고 성령세례 받으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주님과 통하는 기도의 체험이 있기를 바란다.

강대국의 수뇌부 간에는 긴급 직통전화(Hot-line)를 설치하여 비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에 다니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감사가 없고, 감사 없으니 만사가 불통이다. 얼마나 불쌍한 고아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사 1:18)고 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자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막14:37-38, 눅22:31-34).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책임진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4:12-14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풀린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이 있다고 보일 때라도 순종하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무계한 모순투성이의 책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태워 죽이려하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창22:9-12)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불합리하고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그 명령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알을 그냥 주시지 않고 밤송이를 주시면서 가시를 헤치고 꼬집어내어 먹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받는 열쇠가 그곳에 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기도는 유비무환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요, 행통의 지름길이다.

(4면에서 계속)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고난 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충만 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 신세타령만 하고 있었습니까? 세월만 낭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 할 때 따르는 표적도 있었습니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피눈물은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담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새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을 전했듯이 우리도 한마음으로 부르짖고 능력 받아 복음 증거에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 Inc.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기독교서적, 기독교용품, 일반서적, 서예용품 전문,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UPS.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 KAPC 북가주 3개 노회 통합 감사예배

## 북가주 동노회, 서노회, 남노회...21교회 64명 소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북가주 3개 노회(북가주동노회, 북가주서노회, 북가주남노회) 통합 감사예배가 6월 11일 오전 11시 산호세 소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에서 열렸다. 이 통합예배는 지난 5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39회 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KAPC 북가주 3개 노회 통합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통합감사예배에는 총회장 김영수 목사, 서기 조응철 목사, 총무 공재남 목사가 총회 대표로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사회 조응철 목사, 기도 공재남 목사, 말씀선포 김영수 목사, 축도 이근신 목사(전 총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총회장의 통합선포 후 조응철 서기는 다시 64명의 통합노회 노회원을 한명 한명 호명했으며, 노회구직 채택, 박의훈 목사(노회통합준비위원 대표)가 공천부 발표를 했다. 공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몬트리이사람의교회(한재현), 몬트리이한인제일장로교회(이강웅), 산호세우리교회(박종민), 산타루크중앙장로교회(강동호), 상향제일장로교회(박용준), 상향중앙교회(권혁천), 섬기는교회(이재석), 성산교회(최규배), 실리콘밸리장로교회(이광희), SF사랑의교회(이강일), 오클랜드장로교회(오인환), 예선장로교회(정해정), 예수보혈교회(김피터),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제자교회(탁영철), 새크라멘토은혜선교회(박준배), 크로스웨이교회(이찬우), 트래이시장로교회(신주범).

(정리: 유원정 기자)

이여진 회부처리는 김영수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돼 회원점명 후 개회선언에 이어 조응철 목사의 노회통합 경과보고가 진행됐으며, 김영수 총회장이 통합을 선포했다. 원래 한 노회였으나 3개로 분립됐다 다시 한 개 노회가 된 것. 이로써 KAPC는 32개 노회에서 30개 노회가 됐다.

김영수 총회장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76회 북가주노회로 새롭게 시작을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정말로 총회에서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라고

△노회장 김종인 목사 △부노회장 박준배 목사 △서기 민봉기 목사 △부서기 탁영철 목사 △회록서기 한재현 목사 △부회록서기 이찬우 목사 △회계 문일성 장로 △부회계 김홍규 장로.

북가주노회에는 21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더블린사랑의교회(민봉기), 등대교회(윤현철), 말씀의교회(김종인),



MCU 2015 졸업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미션크리스천대학교 2015 졸업식

총 5명 학위수여

Christian University, 총장 윤요한 박사, 이하 MCU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MCU 강당에서 2013년도



남가주한인기독교장교회 6월 모임에서 최학량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남가주기독교장교회 6.25상기 6월 모임

남가주기독교장교회(회장 최학량 목사)는 지난 13일 6.25 상기 6월

모임을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열었다.

졸업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동문회장 현근석 목사의 사회로 열린 졸업식은 신규석 교수가 기도를, 스티브홍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담임)가 설교했으며, 조창훈 목사와의 한 진 목사가 격려사를, 최성철 목사가 축사를 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을 학훈으로 하는 MCU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명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다음은 졸업생 명단이다.

△목회학석사: 김정욱 △삼담학석사: 김승임, 김현정 △신학사: 최미상, 맹훈. (기사제공: 미션크리스천대학교)

이날 모임에서는 최학량 목사가 '불행이 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후에 이기홍 지도목사가 지난 5월 한국 방문 시, 전해 교육사령부 진중 세례식에 참석해 입대자들의 절반에게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남가주기독교장교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5층 도서관에서 모임을 갖는다. (기사제공: 남가주기독교장교회)



OC교협주최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스트레스 확~ 풀렸어요!”

### OC교협 주최 제6회 사모블레싱나이트 성황

제6회 사모님 블레싱 나이트가 오펜시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 주최로 11일 오후 6시 홀리데이인 부에나파카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자매대표 강순영 목사의 부인인 강순자 사모는 "오늘 참석해서 보니 사모님들에게 위로가 많이 된 것 같다. 위로받고 돌아가게 돼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조이신 사모(슈마교회)는 "늘 대접하는 것에 익숙한 사모들을 위해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대접받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만 이 자리를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미국을 방문한 김수정 선교사(남인도 벵갈로르)는 "선교사지만 사모입장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사모블레싱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가에 궁금했다. 아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이곳에 연륜 있는 사모님들을 보니

앞으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등 사모들을 위해 섬세하게 준비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는 "사모님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기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 또한 참석하신 사모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식사 및 소음악회, 그리고 3부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민승기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이호우 목사(영성담당부회장)가 기도했으며, 김기동 목사가 '성령이 위로하신다'(요14: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엄영민 목사(이사장)가 축도했다.

2부는 소프라노 김유영 사모가 특송을, 첼리스트 에스더주 자매가 첼로솔로, 그리고 OC 첼로 앙상블이 첼로 연주를 했다.

3부는 송규식 목사(기획담당 부회장)가 레크리에이션 진행했으며, 윤우경 집사(영신도담담 부회장)가 경품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박용덕 목사(증경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ITS 학위수여식에서 벤자민 와락 크와시 나이지리아 교회 감독이 설교하고 있다

## ITS 제 33회 학위수여식

총 23명 중 한인 5명 학위 받아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제임스리 박사)는

33회 학위수여식을 13일 오후 7시 아카데미아장로교회(담임 집 코너 목

사)에서 개최했다. Premkumar Dharmaraj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식은 본교이사 마눅 장목 박사(방콕 성경신학교 총장)이 대표기도했으며 김준수 교수가 성경봉독을, ITS 재학생 합창단이 특송했다.

이어 제임스리 총장의 소개를 받은 벤자민 와락 크와시 나이지리아 교회 감독이 누가복음 9:23-26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날 D.Min 5명, Th.M 9명, M.Div 7명, MA 2명 등 총 23명이 학위수여를 받았는데 한인학생으로는 D.Min 김준수 목사, Th.M 최대일 목사, M.Div 구모경 전도사, 이우수 전도사, MA 최숙희 사모 등 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윌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졸업연주회가 써니사이드교회에서 열렸다

## 윌드미션대학교 음악과 졸업연주회

윌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음악과 학생 졸업연주회가 13일 오후 7시 써니사이드교회(담임 조인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연주회는 WMU음악과 전장한,

이선례, 김은정, 김민규 등 4명의 지휘전공자들이 출연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첫 번째 무대를 꾸며준 김민규 지휘자는 G.F 헨델의 'Concert grosso

op 6-7 in Bb major HWC325'를, 김은정 지휘자는 W.A. 모차르트의 'Divertimento No.2 for String Quarter in D major K. 136'을, 그리고 전장한 지휘자가 Mascagni, Pietro의 'Intermezzo from Opera 'Cavalleria rusticana', Giacomo Puccini의, Nessun Dorma! Aria from Opera 'Turandot', P.I. Tchaikovsky의 'Serenade for strings in C, Op48 1st mov, 이선례 지휘자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No4 Zion Hort die Wachter singen from Cantata'와 'Wachet auf, ruft uns die Stimme, BWV 140', 그리고 안토니와 비발디의 'Violin Concerto in g minor, RV 315, summer 1-3 mov'를 연주했다. (박준호 기자)



이단상담전문가 초청 기자회견이 로텍스호텔에서 열렸다

## “교회에 남는 신천지 피해 가장 심각”

### 미주이단대책연구소, 이단상담전문가 초청 기자회견

이단상담전문가 초청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2시 로텍스호텔에서 미주이단대책연구소(소장 한선희 목사)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단상담전문가인 진용식 목사, 김종한 목사, 김희백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용식 목사는 "LA에 6년 전부터 신천지에서 파송한 추수꾼이 파송되고 있다"며 "LA에 있는 교회에는 신천지가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신천지는 신도들이 6개월 공부하고 수료하면 교인이라 추수꾼 된다. 전 신도가 추수꾼이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선희 목사는 "LA에 신천지 신도가 1천명이 넘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중 80%는 교회에 들어

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수는 5백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백명대로 진입했다"고 지적하고 "목회자들이 이단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현재 LA지역의 5백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는 신천지가 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한 목사는 "신천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천지라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고 신천지에 연결시키고는 빠져버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해서는 누가 신천지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신천지는 점조적으로 활동하기에 예방교육 외에 신천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를 모십니다

## 1.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

-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신 분
- 교사들을 지도해주실 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
-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lapc2@sbcglobal.net)이나 전화(323-954-884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Los Angeles Presbyterian Church)





동부교계 기사판



“초대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로”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및 임실행위

퀸즈장로교회 2015 여름학교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운영하는 2015 여름학교가 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SAT)까지,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7주간.

▲문의: (718)886-4646 함미희 전도사

소프라노 김미경 힐링 콘서트

소프라노 김미경(Anna Kim) Alga의 힐링 콘서트가 오는 24일(수) 오후 8시30분 뉴욕성서교회(담임 김종일 목사)에서 열린다. 김미경 씨는 LA 은마음교회 김중환 목사의 아내로 이번 콘서트 주제는 “내 주의 은혜 강가로”이다.

▲문의: (631)243-5683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 리더십 훈련 캠프가 8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9-12학년 학생.

▲문의: (917)698-6065, (201)242-4422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특별연합집회 및 강연

대한민국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와 필라지회가 공동주최하는 6.25 65주년/건국67주년 기념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특별연합집회 및 강연이 이호 목사(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를 강사로 뉴욕과 필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23일(화)과 24일(수) 새벽 5시30분 저녁 8시: 프라미스교회 퀸즈성전 △25일(목)과 26일(금) 새벽 5시30분 저녁 8시: 프라미스교회 뉴저지성전 △27일(토) 오후 8시 28일(주) 오후 6시 필라안디옥교회 △29일(월)과 30일(화) 오후 7시 워싱턴 필그림교회.

▲문의:(718)321-7800, (201)461-2600, (610)828-6760, (703)978-1600

11회 연차총회 함께 사무실 겸 전시실 개관식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남수 목사)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내에 ‘이승만 박사 전시관’의 문을 열었다. 동 뉴욕지회는 지난 8월 오전 11시 프라미스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11회 연차총회와 함께 사무실 겸 전시실 개관식을 가졌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한편 총회 후에 프라미스교회 7층에 마련된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사무실 겸 전시실 개관식이 있었다. 이 전시실에는 소규모지만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대별 사진과 전시해, 특별히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건국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 뉴욕지회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소로 활용가치도 있다고 보고 관람이 필요할 경우 사전 연락을 하면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교계와 동포사회 뿐 아니라 미주전역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책가격은 권당 10달러. 미 주류 기관과 도서관에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총회 후에 프라미스교회 7층에 마련된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사무실 겸 전시실 개관식이 있었다. 이 전시실에는 소규모지만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대별 사진과 전시해, 특별히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건국대통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뉴욕지회)

뉴욕교협이 지난 12일 뉴욕 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3차 임실행위위원회 및 4차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를 갖고 다시 한번 기도 불길을 붙였다. 기도회 후에 열린 제 3차 임실행위는 이재덕 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먼저 한재홍 목사가 과테말라 초등학교 성경교육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교협이전 봉헌감사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고 손아람 집사 장례 △체육대회 △네팔구제현금 △할렐루야대회 △회계 및 감사 보고로 진행됐다.

회계 이광모 장로는 수입 25만9천여 달러, 지출 23만7천여 달러로 보고하면서 할렐루야 대회 후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적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했다.

감사 허은준 목사는 “임원들의 재정을 많이 쓰시는 건가 많았다”며, “모든 경비는 영수증을 필히 첨부하고, 임원 경비는 예산 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이재덕 목사는 “교협이 건물 이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심히 뛰었다”며 후원을 당부했다.

임실행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승재 목사 인도로 기도 주효식 목사,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 특주 유상열 목사, 말씀 박희소 목사, 통성기도, 광고 한기을 목사, 축도 이만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희소 목사는 “건강한 교회”(행 2:42-4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상 가령교회는 100% 건강한 교회가 없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보자”며 “건강한 교회는 첫째,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가 부단히 일어나야 한다 셋째, 좋은 소문이 나고 평판이 좋아야 한다 넷째, 늘어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날 상황이 어렵지만 각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인도 김연규 목사) △뉴욕 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인도 유용진 목사) △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인도 이준성 목사) △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 진행을 위

하여(인도 황규복 장로)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또 할렐루야대회 감사 소감서 목사(새에덴교회 담임)가 보낸 동영상(유원정 기자)



뉴욕성결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등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질그릇 목회로 예수그리스도 빛나게”

설립39주년 뉴욕성결교회 2대 담임 강기성 목사취임

뉴욕성결교회가 설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2대 담임 강기성 목사 취임예배, 임직예식, 선교사 파송식 등을 가졌다.

지난 14일 저녁 5시 본 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린 설립기념예배는 박찬순 목사(중앙지방회 기도박성빈 장로, 찬양 시몬찬양대오케스트라, 설교 이대우 목사(중앙지방회장), 근속패 증정의 순서로 진행됐다.

1대 장식된 목사의 은퇴 후 지난 8개월간 공석이던 뉴욕성결교회에서 치리목사였던 이대우 목사는 결혼 후 10달이 지나야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했다. 이 목사는 이날 “강하고 담대하라”(수1: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세를 이어 리더십을 이양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하셨다”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동한 자가 된다”며 강기성 목사를 축복했다.

새 담임 강기성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보배와 같이 가슴과 삶 가운데 품는 질그릇 같은 목회를 하겠다. 오히려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 속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될 줄 믿는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심자기를 제가 먼저 짊어질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심자기의 능력, 회복과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뉴욕성결교회는 지난 1월 사무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강기성 목사(48세)를 2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강 목사는 송실대 철학과(BA), 연세대 신학과(BA), 서울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고든콘웰(MA)과

상이 상영됐다. 마지막 준비기도회는 19일(금)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2015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리며 29일(월)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소감서 목사를 감사로 목회자세미나가 열린다. (유원정 기자)

영국 에딘버러대학교(M.Th.)에서 구약학을 공부했다. 미주성결교회에서 2001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보스턴성결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다 유학,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성결교회를 개척, 담임목사로 섬겼다(2003-2015). 가족으로는 이유정 사모와 두 아들이 있다.

2부 담임목사 취임예식은 이대우 목사 인도로 천우철 목사 기도후, 새 담임목사 소개, 서약, 치리권 부여, 취임패 수여 등이 있었으며 한국 부평제일교회와 프랑크푸르트, 에딘버러 등지에서 보낸 축하영상도 상영됐다.

3부 임직예식은 강기성 목사 인도로 안수집사 4명, 권사 10명, 명예권사 1명 등 총 15명이 임직됐다.

또 4부 선교사파송식에서는 최조영 흥정의 선교사부부가 알바니아로 파송됐다. 내과사인 최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됐는데 중간에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 포기한 때도 있었다”며 “나중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5부 축하순서는 황하균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허걸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회장, 이재덕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뉴욕목사회 회장이 축하하고, 김석형 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의철 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도 관전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은 원로 장식된 목사에게 찬화패를 전달했다.

엘리엘 남성중앙단의 축하송과 기념품 증정, 인사및광고(장성면 장로)가 있었으며 박희소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 및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저지교협 주최 호산나복음화대회

7월 29-30일, 강사 한기홍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이병준 목사)이 매년 주최하는 호산나복음화대회가 그 일정 및 강사를 확정하고 본격적 준비에 돌입했다. 뉴저지호산나복음화대회는 7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강사 한기홍 목사(LA은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진행된다.



강사 한기홍 목사는 지난 7월 제 64회 국가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워싱턴 DC 연방 국회의사당 캐논 홀에서 한인 목회자로는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했다.

한기홍 목사는 올해 3월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된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대회’에 참석해 동성애 허용 등 미국의 영적 위기상황을 지적하면서 뉴욕과 미국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뉴저지교협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호산나전도대회’ 명칭을 ‘호산나복음화대성회’로 변경했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pastors.



# 미주교계에 불어닥친 CCM 저작권 요청 파문

## CCLI 저작권관련설명회...사용 않는 게 상책?

최근 미주교계에서는 예배에 사용되는 CCM에 대한 저작권 요청을 담은 편지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Korea 주최 저작권 관련 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호프센터에서 개최됐다.



CCLI 한국지사 합승모 대표가 저작권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강사 CCLI 한국지사 대표 합승모 씨는 저작권에 대한 개요와 최근 저작권관리단체인 엘로림 측에서 보낸 편지, 그리고 대처방안 모색에 대해 강연했다.

합승모 씨는 "창작물은 국가가 지정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동체이지만 수많은 창작물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언급하며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사람 수에 맞게 약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가곡의 경우 찬양대원수에 맞게 약보를 구입하면 되고, 찬송가의 경우 대부분의 교인들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CCM으로 불

리는 위심곡은 곡수도 많을뿐더러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에 약보를 복사하거나 음원을 배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전도용 설교CD를 제작할 때 찬양곡을 삽입하는 것 역시 저작권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합 대표는 "엘로림이 보유한 저작권은 총 184개 찬양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들을 사용한 교회들에 저작권 지불에 대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높은 저작권료에 대해 교회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는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 대표는 "엘로림의 저작권 주장은 창작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합당한 행위지만 교회 측에서 볼 때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높으며, 그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느껴진다면 해당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찬양사역자들은 엘로림측의 주장에 대해 엘로림이란 단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저작권료 지불요청은 성급한 처사이자 황당함 그 자체라고 말하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인사회와 교계에 계몽부터 한 다음에 저작권료 요청을 했다면 이러한 혼란은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CCLI는 미국교회에서 불러지는 찬양곡은 예배시간에 불려지는 곡들이 자동적으로 CCLI에 보고가 되도록 프로그래밍 돼있기에, CCLI와 계약이 되어있는 한인교회들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저작권관련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합승모 씨는 "창작물은 국가가 지정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동체이지만 수많은 창작물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언급하며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사람 수에 맞게 약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가곡의 경우 찬양대원수에 맞게 약보를 구입하면 되고, 찬송가의 경우 대부분의 교인들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CCM으로 불



생명의전화 창립 17주년기념예배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종합적 사회봉사센터로 섬기겠다"

### 생명의전화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 창립 17주년 기념예배가 13일 오후 5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박다윗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사예배는 황은석 목사(제14기 상담봉사원)가 대표기도, 이미숙 집사(제19기 상담봉사원 회장)가 성경봉독, LA색소폰오케스트라(지휘 줄리박)가 특별찬송했으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화평케 하는 자'(마5: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원장 박다윗 목사는 인사말에서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 동포들의 한을 풀어주며 상처받은 가슴에 소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 생명의 전화는 자살예방센터 및 성폭력 상담센터와 종합적인 사회봉사센터로 동포들을 섬기기 원한다. 더불어 봉사자 유가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영 김 주하원의원의 축사 후, 생명의전화, 박다윗 목사, 그리고 김문화 상담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태환 목사(전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나이스크월드 '예배회복 컨퍼런스'

6월 29일-7월 2일, 텔라웨어대학

Nysck World Mission(NWM, 총재 피조진 목사)이 주최하고 필라한인교회협의회, 필라목사회, 텔라웨어교회협의회 등 교계와 단체가 후원하는 2015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텔라웨어 대학에서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1993년에 설립된 NWM은 예배회복을 이루기 위한 톨로 5가지 신앙의 강령(기도, 말씀, 전도, 성령의 교통, 헌신)을 모토로 1996년 첫 컨퍼런스를 개최한 후 20년 동안 이 사역을 펼쳐왔다.

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나이스크 운동은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많은 신앙운동들이 탈 교회운동이라면 나이스크는 교회중심 운동으로 모

이먼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라고 본 컨퍼런스를 소개했다.

또한 현재의 복음화율이 2%에 불과한 원인을 '모기를 힘쓰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2015 월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중심, 교회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주제 역시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로 택했다고 귀띔했다.

참석대상은 목회자부부 및 가족이며 참가비는 일반인 300달러, 목회자 150달러이며 자세한 것은 www.nysck.org 에서 볼 수 있다. 이메일 nwm@gmail.com

(기사제공: Nysck World Mission)

## JF Mark&Calvin Park with Friends 콘서트

### 마당물서 기독교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무대 성황

JF Mark & Calvin Park with Friends 콘서트가 13일 오후 6시 타운 마당물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를 기획한 제즈폴랫 연주자 JF Mark씨는 "이번 콘서트는 버클리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크리스천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제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

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 마침 마당에서 연주하게 됐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연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기획자인 색소폰 연주자 켈빈박 씨는 "한국에는 길거리문화가 활성화되었는데 한인사회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과 음악을 통한 소통을 나누고자

# 서부교계 게시판

## 크리스찬투데이 창간18주년기념 토크 콘서트

크리스찬투데이(발행인 서종천 목사) 창간 18주년 기념으로 크리스천 명사들을 초청한 토크 콘서트 '말하다'가 6월 18일(목) 오후 6시에 열린다. 토크 콘서트의 패널리스트는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의원, 김예설 극동방송 미주지사장, 윤임상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이며 서인실 편집국장장이 진행을 맡는다.

▲문의: (213)381-5533

## GMI Youth Orchestra 'Summer Concert'

은혜한인교회 GMI Youth Orchestra(지휘 정승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20일(토) 오후 7시 비전센터 분당에서 개최한다. 지휘는 오렌지카운티시포니 악장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린리스트 정승재씨.

▲문의: (714)318-2085

## 어바인 골수기증협회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

어바인 골수기증협회는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을 21일(주)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갖는다. 골수기증 등록절차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3mHOPE.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213)626-2802 ex116 문정현 코디네이터

## 오렌지힐교회 예배학교

오렌지힐교회(담임 백창호 목사)는 예배사역향상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5주간에 걸쳐 매 주일 개최한다. 강사와 일정은 △21일 이현 목사(ANC온누리교회) △28일 양대진 목사(토렌스조은교회) △7월12일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 △19일 지명현 목사(나성영락교회) △26일 정종원 목사(아이엔교회). 예배학교의 등록비는 20달러(강의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714)633-3104

## 바이블 컨퍼런스

LA지역 바이블 컨퍼런스가 오는 7월 2일(목)부터 4일(주)까지 채프만 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주혜훈 목사(90일 성경일독 통권 통독), 지용우 목사(시라쿠스한인교회)이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등록은 홈페이지(www.labibleconference.org)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213)598-5323



JF Mark & Calvin Park with Friends 콘서트가 마당물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다"고 말했다.

콘서트에 상어로 참여한 백예슬 자매는 "즐거움 마음으로 콘서트에 참여하게 됐다. 콘서트 중간중간 찬양하는 시간도 있어서 더욱 기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JF Mark와 켈빈박이 드러머 JY, 기타리스트 조난담, 베이스기타리스트 조수아 민석 정, 키보드연주자 아이리스 유미 김으로

구성된 밴드와 함께 연주했으며, 토요일 오후 마당물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들의 연주소리에 몰려들어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JF Mark & Calvin Park with Friends 콘서트는 한달에 한번 마당물 광장에서 정기공연을 펼쳐나가게 된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로목사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원로목사예배: 오후 2:00(영양) 주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2부: 오전 9:20, 11:30</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p>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요찬양예배: 오전 9: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요찬양예배: 오전 2:30(성년) 주요예배: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요예배: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토): 오전 6:30 EM: 대부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탄):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새 오 예배: 오후 7:00 새 오 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202, Fax: (213)977-1183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16</p>	<p><b>남가주사랑교회</b></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 들 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 (영소:KOC, 캠퍼스(달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침 들 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ena CA 90248 www.dhpc.org</p>	<p><b>등원교회</b></p> <p>담임목사: 김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youngnak.com</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를 향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2 (2층) 박스 건물,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드림교회</b></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 들 이 예배: 오후 1: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523,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16</p>	<p><b>빛과 소금의 교회</b></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침 들 이 예배: 오후 1:00(성년)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0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복음성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요셉선교회</b></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b>얼바인침례교회</b></p>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윌셔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대학부)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요찬양예배: 오후 2: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찬양예배: 오후 2:45(토)</p> <p>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p>	<p><b>좋은마음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www.samsungchc.org Tel: (714)649-928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v.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9</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성년) 침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메르스, 기도의 힘 모을 때” 잇단 성명

### 주요 교단, 교회 차원 철저한 예방 당부

주요 교단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사회적 불안감 고조를 우려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교회 차원의 철저한 대비와 정부의 신속한 진압을 촉구했다.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은 9일 발표한 ‘위기의 시대 더욱 기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섭리의 손길을 베푸셔서

쉬지 않고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셨다”며 “기독교계는 협력해 정치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힘든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예장통합은 10일 정영택 총회장 명의로 산하 교회들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국 교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정 총회장은 “교회는 메르스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환자들이 치유돼 국가적·사회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 및 환자 교우들을 위해 각별히 예방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예배를 제외한 다양한 집회를 당분간 자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정 총회장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기적 행동을 하지 말고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은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동선 총회장은 이날 소속 교회에 목회서신을 보내 “메르스가 확산돼 인명피해가 커지고 국가가 재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병원에서 격리 혹은 치료 중인 감염자들이 조속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공동회장 등 12명 ‘이영훈 대표회장 흔들기’ 기자회견

### 한기총 집행부 “강력대응... 이단재심활동에 영향력 행사 의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최근 한기총 일부 인사들이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기총 지도부는 이들의 행태가 현재 진행 중인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재심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기총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노아(성서총회) 목사를 포함한 한기총 공동회장 등 12명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기총 개혁을 위한 공동회장단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하성(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과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에 성직자를 인정하는 교단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즉각 탈퇴하라’ 등 5개 결의사항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 결의가 수용된다면 우리 공동회장들은 (이 대표회장에게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14일 “한마디로 ‘어불성설’ 기자회견”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사는 한기총 공동회장 27명 중 7명에 불과해 공동회장단이라는 대표성을 지닐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에 대한 사전 공지도, 사후 보고도, 기타 설명도 없이 한기총(대표회장)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기하성과 이 대표회장이 WCC에 가입하거나 종교다원주의·동성연애 등에 동조한 적이 없는 데도 ‘WCC를 탈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기자회견문 가운데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이 대표회장의 신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직무행위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나 대화를 통해 접근할 통로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땀금없이 직무정지처분신청을 해놓고 결의사항을 수용하

라고 압박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기총 안팎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현재 주요 교단들의 동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기총의 이단재심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기총 고위 인사는 “이단재심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인사들이 향후 재심 결과에 따른 입지 축소 등에 위기의식을 느껴 집단행동으로 리더십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기총은 이번 주에 임원회를 열어 기자회견 주동 인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한다. 한기총 정경(운영세칙)에 따르면 한기총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단(단체)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보류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는 12일 전 문위원장 1차 회의를 갖고 세부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 한기총, 대표회장 흔들기 주도자 제명

### 진택중 목사 등 동조한 10명 자격정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최근 대표회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제명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한기총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상옥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긴급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한기총 공동회장 등 11명에 대해 제명 또는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한기총 운영세칙(3조6항)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단(단체)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

보류나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기자회견과 대표회장 직무정지처분 신청을 주도한 진택중(보수) 목사는 제명됐다. 김노아(성서총회) 김인식(개혁동) 강기원(예장) 이근호(중앙) 조경대(개혁) 이승렬(개혁총회) 조창희(예장중경총회) 김경직(기독교시민연대) 목사 등 10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향후 임원회 같은 한기총의 각종 회의 참석이 제한된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제기한) 모든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허위 사실을 주장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의 분열을 획책하는 건 목과할 수 없다”며 징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자격정지를 당한 이승렬 목사는 “이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위반한 일이 있기에 이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신청을 낸 것이지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은규 길자연 목사 등 한기총 전 대표회장들은 “한기총 내부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 여론화하면서 대표회장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기자회견

주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발언권 부여 문제로 기자회견 주동 인사들과 일부 참석자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또 직전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와 엄기호(성령교회) 목사가 지난해 초 제19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보등록을 위해 1억원씩 남부한 한기총 발전기금의 정확한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홍 전 대표회장의 공식 회의 출입은 금지됐다.

## “동성애, ‘문화’ 로 포장돼 확산”

### 예장고신,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은 고신인론사(사장 배종규 장로)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통일로 서울영천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 호주의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 브라질의 ‘파라다 게이’ 축제 현장을 소개하며 국내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우려를 나

타냈다.

이 교수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 만 13-24세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가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됐다”며 “국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지난 14년 동안 26배 증가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법”이라며 “한국교회는

동성애의 사회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며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경적 성교육’을 주제로 강의한 에스더기도운동 이한나 간사는 “요즘 청소년들은 성(性)에 대해 잘못된 기술된 교과서로 인해 그릇된 성 인식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한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경우 성관계가 대상과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사회 교과서의 경우 ‘인권’ ‘성적 지향’에 대해 성소수자 중심의 정서가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가 먼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해 알려

주지 않으면 이후 자극적인 세상의 성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아무리 옳은 것을 알려줘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고신과 고신인론사는 지난 5일 공동으로 동성애대책 긴급좌담도 개최했다. 예장고신 관계자는 “동성애 대책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인권위장 “동성애반대 혐오세력”

### 한교연 한국교회언론회, 발언 비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동성애 축제에 반대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혐오세력’으로 폄하한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에서 “(문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인권을 소홀히 한 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만 몰두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서울시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서울시인권위원장인 그가 메르스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비상사국인 이때에 동성애자축제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민 96%가 반대하는 쿼이 현재 주요 교단들의 동침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기총의 이단재심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기총 고위 인사는 “이단재심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인사들이 향후 재심 결과에 따른 입지 축소 등에 위기의식을 느껴 집단행동으로 리더십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교연은 문 위원장의 발언이 “기독교인의 존엄을 짓밟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문 위원장이 ‘단언컨대 혐오세력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라고 맹비난한 데 대하여 똑같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인권위원장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1000만 기독교인들의 존엄을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인권위원장의 이러한 인권 편향적 발언을 놓고 볼 때 쿼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개 과장에 떠넘기고 절차상 철회할 수 없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중적 자세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도 논평에서 “공직자가 시민의 생각과 정서를 무시한 채 편파적 발언을 한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스스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문 위원장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몰고, 반대하는 입장을 ‘혐오’로 몰아가는 망언을 했다”면서 “더구나 ‘근거 없이 비판했다’는 대목에서는 서울시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광장의 동성애축제에 대해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국민들의 일반 정서를 적절하게 한다”면서 “그러나 박 시장은 시민들의 절대다수 정서와 교계 지도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내 동성애 축제를 허락함으로써 친(親)동성애, 반 시민적 이미지를 굳히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박종순 목사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된 박 시장과 문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정말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공인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000만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부터 청취하라”고 질타했다.

## 한교연, 차별금지법저지 법제위 설치

### 임원회 만장일치 통과…‘청지기교회’ 위원회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동성애 및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신설기로 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긴급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청지기교회’ 캠페인은 위원회에 맡겨 처리기로 했다.

한교연은 12일 서울 종로구 감상옥로 한교연 회의실에서 임원회를 열어 양심·사상·종교 비판의 자유를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을 전국교회에 알리고 임원지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양 대표회장과 박원근 김요셉 한영훈 전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법제위원회 신설 취지 설명에서 “서울광장에서 쿼이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던 근거는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인 성적 취향(趣向)을 성적 지향(志向)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권리인 것처럼 인정해 놓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다”면서 “이처럼 일단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문제와 같은 반(反)기독교 이슈는 계속 생겨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교회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 정지인에 의존하지 말고 투표권 및 법적 대응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직접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원회에선 또 이단사이비 척결, 붕은사역명 철폐, 동성애 확산 저지, 안티 기독교 세력 대처 등 한국교회의 긴급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청지기교회’ 캠페인을 위원회에 맡겨 처리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양병희 대표회장이 제안한 것으로 10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개 교회 차원의 연대조직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양 대표회장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공개적으로 친(親)동성애에 정체를 추궁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나 개신교를 혐오세력으로 지칭한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오는 28일 동성애자들의 나체 퍼레이드는 경범죄로 고발하고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을 펼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사상·비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탈동성애 인권 교회연합’ 출범

### 700여 교회와 단체, 탈(脫)동성애자 인권보호

동성애 치유·회복과 ‘탈(脫)동성애자’(Ex-Gay)의 인권보호를 위해 목회자들이 발 벗고 나섰다.

700여 목회자 등이 참여한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주로 갈브리체펠서교회(이요나 목사)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탈동성애자’란 동성애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지향자)을 말한다.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자이지만 국내에선 이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가 구제, 교육·홍보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은 출범선언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에이즈(고) 위험군’ ‘수명 단축’ 등 동성애의 폐해는 감춘 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옹호·조장·확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탈동성애자들이 설 곳은 없어지고 동성애

확산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은 인권 유린의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성(性)중독의 일종”이라며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은 탈동성애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활동을 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추방하며 건강한 가정과 올바른 성윤리를 갖기 위해 단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동성애국제연맹’ 결성식을 갖는다. 이 행사에는 동성애자로 살다가 ‘탈동성애 인권운동가’가 된 미국 포틀랜드 펠로우십 대표 제이슨 톰슨 목사가 참석해 탈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해 증언한다.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은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개최하며 탈동성애 인권 개선 캠페인도 벌인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전시회 공익광고 등 탈동성애 인권 문화콘텐츠 개발

에도 적극 나선다. 동성애자 전도와 치유·회복, 상담사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각 지역교회에 동성애 치유회복 센터(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미나 개최와 학술지 발간, 정책연구소 설립 등 탈동성애 정책도 연구한다.

또 부속기관으로 ‘탈동성애운동 어머니 모임’을 조직한다. 월간지 ‘홀리라이프 매거진’ 발행, 탈동성애에 예능인 양성을 위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단체 상임고문에는 최홍준(국제목양사역위원장) 박영률(한국복자선교연합회장) 목사가 추대됐다. 상임공동대표에 안용운(부산온전교회) 이요나(홀리라이프 대표) 목사가 선출됐다.

이요나 목사는 출범인사말에서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은 동성애 치유·회복과 탈동성애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역교회의 풀뿌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070-4103-6722).

## ‘단 사상’ 과 ‘신사도운동’ 문제점 논의

### 합동 총회개혁주의신학대회, 강사 정승원, 심창섭 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총회신학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에서 ‘2015 총회 개혁주의 신학대회’ 3차 대회를 갖고 ‘단(丹) 사상’과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단 사상의 이단성 고발’을 주제로 발제한 정승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이승헌의 단학사상은 전형적인 기독교 이단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교리들을 인용해 절대적 진리인 양 이단처럼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학사상을 잘 분석하

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헌의 단학사상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모든 종교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한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며 “이승헌의 주장은 결국 근거가 불분명한 개인적 신념이요 미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승헌이 주장하는 단전호흡을 통한 에너지는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개념에 불과하며 객관적 자료나 연구 없이 단학사상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오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심창섭 전 총신대 신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보

는 신사도운동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심 전 교수는 “오순절 운동의 여파로 나타난 은사주의 중심의 성령체험이 신사도운동을 낳았고, 신사도운동은 기독교 세계관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교회에서 교회의 권위가 공동체의 회나 제직회와 같은 교회의 구조에 있다고 보는 반면 신사도운동에서는 사도 개인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주장한다”면서 “사도들이 목사의 영적 아버지로 군림해 목사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총회신학부 관계자는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역라마단 기도운동' 호소 목요기도운동 안내서 발간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는 '목요기도운동'이 이슬람 라마단 금식기간에 맞춰 기독교인들에게 역라마단 기도 운동을 호소하며 안내서를 발간했다. 목요기도운동에 의하면 2015년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기간은 6월 18일부터 시작돼 7월 17일 경 끝나게 된다. 전세계 16-7억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동시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에 크리스천들이 더욱 깨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역라마단 기도운동이라고도 부른다.

'크리스찬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 안내서 : 은혜와 진리의 30일 기도'는 크리스천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슬람의 중요한 교리와 문제들을 파헤치며,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본지는 이 기간에 동안 수 회에 걸쳐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 “크리스찬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 안내서” (1)

은혜와 진리의 30일 기도 Prayer Guide for One Month to Love Muslims with Accurate Understanding of Islam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진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슬람까지 품고 가자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연가들을 사랑한다고 담배와 흡연 습관까지 꺼안고 가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애연가들이 폐암환자는 아니지만,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체에 몹시 해롭고 위험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 줘야 담배를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안내서입니다.

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정제와 무슬림들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슬람”(종교)과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꾸란(이슬람의 경전)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과,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는 무함마드(이슬람의 창시자)의 언행록(Hadith)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들어가는 말

기독교인이 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기도해야 하나요?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로서 전 세계 16억 무슬림들이 동시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르친 달이라 해서 신성하게 여기고 이슬람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부부관계도 금지되며 하루 5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는 순간부터는 평

일 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슬람국가에서 라마단 금식월에 소비하는 음식의 양이 다른 달보다 훨씬 더 많고, 기업들은 라마



단 특수를 위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금식하기 힘들도록 정부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나라도 많습니다. 따라서 라마단은 고통스러운 금식기간보다는 무슬림들의 축제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기간을 매우 중요시하여 종교경찰들이 낮 시간에 금식하지 않는 무슬림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것도 적발하여 처벌합니다.

라마단기간에 무슬림들은 '타라위'라는 특별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는 20개의 순서로 돼 있으며, 함께 모여 한 달 동안 무한한 찬송을 낭독하게 됩니다. 또한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을 더욱 신성하게 여겨 밤새도록 기도하며 꾸란을 낭독하는데 이때 기적을 체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을 다짐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덩달아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도 심화됩니다. 교회들은 라마단 기간에 많은 공

격과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과거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위협해집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이슬람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받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족과 마을을 등지기도 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 기간 동안 더 심하게 표출되는 이슬람의 폭력성과 거짓을 보면서 회의의 느끼고, 진정한 진리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슬림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과 때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의 어두움이 가장 강할 때 교회의 기도는 더 강력한 빛을 발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난 중에도 평강과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위협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환난을 통해 정금 같이 연단되게 하소서!

셋째 날: 이슬람권에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소서!(막16:15, 딤후전2:4)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박해지역 이슬람권에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진, 훈련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소서!

넷째 날: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소서!(롬1:16, 고전2:4, 5)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두려워하거나 조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건강과 가정을 축복해주소서!

다섯째 날: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사42:12)(요일4:1-3)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구원과 거룩의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바로 알아서 이슬람의 영을 분별하여 섞이지 않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여섯째 날: 이슬람이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요8:31-32)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기준인 성경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

제라는 친근한 이름에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거짓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소서! 무슬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참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일곱째 날: 이슬람의 위장 교리(타카야)를 알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소서(요16:13, 요일1:5)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빛 앞에 이슬람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무슬림들도 진리로 인도받게 하소서!

여덟째 날: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고전1:23-24, 요일5:12)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자랑합니다. 무슬림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얻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홉째 날: 무슬림들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롬12:19, 눅23:34)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이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며 끝없는 증오와 보복의 고리에 갇힌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 주소서!

열째 날: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소서!(2)(고후4:8-9, 요일4:4)

살아계신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사방으로 우겨쌌을 당하고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기독교인들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소서!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보다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서 담대하게 하소서!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영어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pchurch.com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1:30 총독부예배: 오전 10시, (만민) 오전 11시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ed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컴) 701 Scaleyp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pchurch.com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wjlc.com	<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542-1490, 사해: (915)541-4365 3416 Ali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부흥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sen, TX 756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에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침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com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어예배: 오후 2:00 원어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0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www.kucc.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kcp.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 편지

#### 스와지랜드

우아프로젝트 5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이사야 46:10)

이곳 스와지랜드는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듯 하지만 한국처럼 얼음이 얼거나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서 아직 실감은 못합니다. 그러나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많아지는 것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

한국은 메르스중후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쓰러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동역자 분들에게도 영육 간에 강건하심이 늘 함께하심을 기도합니다.

SCU 헬스센터로 시작하였으나 이곳 사람들의 헬스센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독립적이고 더 나은 섬김을 위해서 역할을 메디컬센터로 하고, 이름도 스와지랜드와 한국의 협력을 돈독히 하자는 의미로 SwaKor Medical Center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소망합니다.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이곳에서 당장 필요한 외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등 여러 분야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가장 적합한 분을 동역자들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의과대학의 개설에 관해서는

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 제반 방법을 이사장님, 총장님, 대학의회의장님께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의논이 6월 12일에 있을 대학의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 모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의논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과대학이 제대로 시작하고 자리 잡으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고 학교의 제반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원

5월 중에는 스와지랜드 빈민 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와 지역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글로벌 투게더의 손정배 본부장과 강영숙 대리가 다녀갔습니다. 제

반 준비를 갖춘 다음에 이곳 보건 요원들과 함께 빠르면 이달 말이나 7월부터 매 주말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참여할 선생님들과 간호학과, 약학과 학생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외과중심의 수술팀으로 진료 팀을 꾸려서 이곳 정부병원들과 연계해서 협력하려 하였고, 비행기표 확보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하시는 분이 적어서 수술팀을 꾸려서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outreach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환자가 생겼을 때 연계하여 수술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조금의 시간이 있으므로 혹시 함께하실 선생님들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임상 분야라도 환영합니다. 기간은 일단 7월 24일 금요일부터 2주간내외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김경진 부학장(010-2743-8430)이나 김선영 교수(010-4408-7143: sykim@cnu.ac.kr)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정년하시고 들어오셔서 1년간 간호학과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해 주신 소희영 교수님께서 방학을 맞아 짧은 귀국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1학년 농두두조 학생의 심장병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전북 대학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수술하지 않고 내과적 시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북대 병원 주찬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생이 퇴원한 다음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서 간호학 실습에 대한 경험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과정에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에는 5분이 정기후원으로 새롭게 또는 재가입을 해주셨고 5분이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한 후원금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아프로젝트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 기도제목
1. 의대개교와 독립적 운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2. Medical Center가 필요한 동역자들이 잘 채워져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동역하시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인 여러 선생님들과 기도하며 속고 중이신 몇 명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4.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20명의 상주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2주간씩 오셔서 함께 하실 100명 이상의 단기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5. 함께 동역하실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게스트하우스 담당자 등을 보내주시도록

### 부활한 칼리파제국의 악몽에서 산다!

(1면에서 계속) 남편을 잃고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살 돈이 없어 반지를 훔친 한 여성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두 명 앞에 끌려가 재판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IS가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 왼손을 테이블에 묶고 손목을 잘랐다고 말했다.

6월, 모술에서 세 명을 죽이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IS가 동성애자로 지목한 남성들을 높은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떨어뜨리는 것을 군중들이 지켜보는 모습이였다.

IS는 시아파를 배교자들로 몰고 모술의 성지와 시아파 모스크를 파괴했다. 자신들이 해석하는 수니파 이슬람과 다른 성격을 가진 종파들도 마찬가지다. IS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묻혀있다고 알려진 무덤을 폭파했다. 그들이 '이슬람답지 못하다'고 선언한 수니파 모스크도 파괴했다.

그들이 모술을 장악한 후, 모술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은 IS식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세금을 내거나 처형당해야 했다. 거의 모두가 도시를 떠나 도시 한 구역이 텅 비었다. BBC가 입수한 영상에 의하면 그들의 집은 몰수됐고, IS가 기독교 신자를 부르는 단어들 '나스라니'를 상징하는 'N'자를 써놓았다.

모술의 시민들은 깨끗한 물과 전기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월, 한 모술 주민은 BBC에 오염된 물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휴대전화 네트워크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 아픈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시기 모술에 있던 기자의 말을 빌려 모술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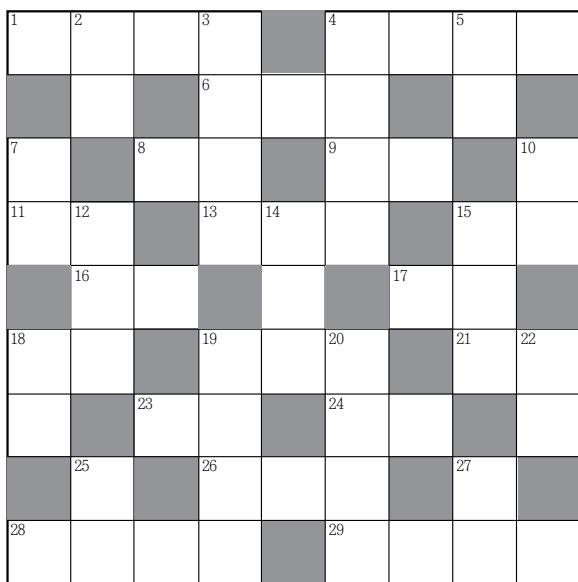
한 주민은 가디언을 통해 전기는 일주일에 몇 시간만 들어온다고 말했다. IS는 12월, 인터넷과 전화도 차단했다고 한다.

모술의 경제도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다. 이라크 정부는 모술의 공무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중단하면 모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고 바그다드에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해 계속 월급을 주고 있다.

5월에 라마디가 함락된 이후, 모술을 탈환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지연된 상태다. 미국 고위 공무원들은 뉴욕타임스에 2016년까지는 다시 공격이 없을 것이라 했다.

### 십자말 • Cross Word (85)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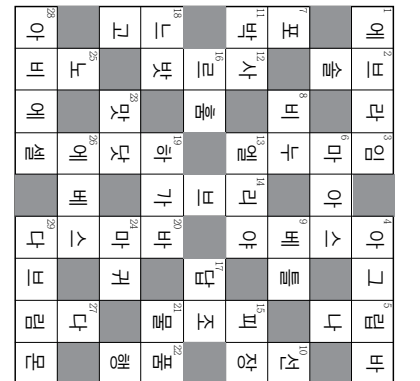
#### <가로 푸는 열쇠>

1.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둘째 아들(창41:52)
4. 헤롯 대왕의 손자로 갈릴리, 드라고니 등을 통치함(행26:27).
6. 여라르멜의 처음 낳은 랍의 아들(대상2:27).
8. 때를 빼거나 씻어낼 때 쓰는 물건(렘2:22).
9. 명주, 무명, 삼베 같은 피륙을 짜는 틀(삼상17:7).
11. 일정한 학술을 전공하여 낸 논문을 심사하여 수여하는 가장 높은 학위(마2:9).
13. 까마귀, 사르갓 과부, 갈멜산.....이만하면 누군지 아시겠조(왕상17:15).
15. 짐승 가죽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행9:43).
16. 스킴바벨과 함께 귀환한 백성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느10:25).
17. 응답의 조서(스5:5).
18. 여로보암 왕의 부친(왕상11:26).
19. 솔로몬 왕 신복의 한 조상(느7:48).
21.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 물자(겔27:24).
23. 예수의 조상(눅3:24).
24. OO들과 싸울지라...(찬송348장).
26. 잇사갈 족속의 성읍(수19:20).
28. 므낫세의 아들 길르앗의 누이 함몰레렛의 아들(대상7:18).
29. 다메섹 왕으로서 벤하닷의 부친(왕상15:18).

#### <세로 푸는 열쇠>

2.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이 시내를 건넜을 것이라 한다(삼상30:9).
3.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심(마1:23).
4. 세마포 짜는 자의 집(대상4:21).
5. 가나안의 성읍인데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유다지파에게 주었다(수15:42).
7. 불잡아서 결박함(막15:7).
10. 배 안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두머리(행27:11).
12. 이곳의 한 과부가 엘리야 선지를 공회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왕상17:9).
14. 이삭의 처(창24:64).
15.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물건(롬1:25).
18. 애굽 왕(대상35:20).
19. 소바왕, 다윗과 싸워 패함(삼하8:10).
20. 하만의 일곱째 아들(에9:9).
22. 성품과 행실(잠20:11).
25. 남종과 여종의 총칭(전2:7).
27.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보는 일(암7:8).

#### 십자말 정답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 여행상품 · 일정

-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699  
\* 출발일: 4월 4일, 18일/5월 2일/9월 19일/10월 3일, 17일/10월 31일
-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499  
\* 출발일: 4월 5일, 11일, 25일/5월 3일, 9일/5월 31일/7월 26일/9월 20일, 27일/10월 10일, 11일, 25일(13일)/11월 7일, 28일
- 터키/그리스-10일 \$2799  
\* 출발일: 4월 5일, 19일/5월 3일/9월 20일/10월 4일, 18일/11월 1일
- 터키/이스라엘-10일 \$3199  
\* 출발일: 4월 12일, 26일/5월 10일/9월 11일, 25일/11월 8일, 29일
- 터키/밤모/그리스-11일 \$3299  
\* 출발일: 4월 26일/5월 24일/6월 28일

- 터키/그리스/이스라엘-12일 \$3799  
\* 출발일: 4월 19일/5월 17일/6월 21일/7월 26일/9월 13일/10월 11일
- 요르단/이스라엘-9일 \$3199  
\* 출발일: 4월 6일, 20일/5월 4일, 18일/6월 1일/9월 28일/10월 12일, 26일
-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9/11일 \$4199  
\* 출발일: 4월 13일, 27일/5월 11일/7월 24일/9월 14일/10월 5일
-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10일 \$3999  
\* 출발일: 4월 13일/6월 14일/9월 20일/10월 18일
-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10일 \$3999  
\* 출발일: 5월 10일/8월 9일

-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 비자피, 출입국세는 별도
- \* 여행차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순례 15년의 경력  
최적 특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인/터/뷰

“더 테너...” 배재철이 함께하는  
“2015 LAKMA 대한민국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

“한국의 열” 준비하는 윤임상 교수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피노”의 주인공 배재철이 함께하는 2015 LAKMA 대한민국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가 ‘한국의 열’이란 주제로 7월 11일(토)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광복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단장 최승호)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LAKMA 음악감독 윤임상 지휘자는 이번 음악회에 LAKMA 콰이어&오케스트라 120여명, 영앤젤스 어린이 합창단 50명 등 총 170여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음악회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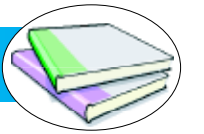
LAKMA는 지난 3년간 단순한 체리티 음악회라는 차원을 넘어 전



2015 LAKMA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음악감독을 맡은 윤임상 교수(사진 왼쪽)와 특별출연자 배재철 교수(사진오른쪽)

북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서주(序奏),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족시인과 항일 투사들을 기리는 연주, 대한민국의 테너와 미국의 한인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 연주,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연주로 진행이 됩니다. ‘코리아 환타지’ 등이 연주되는 서주부분 외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족 시인과 항일 투사들을 기리는 연주에서는 민족시인 윤동주님의 서시, 별 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자화상 등을 음악과 접목해 우리 민족의 서정적인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는 연주와 독립투사인 류관순, 안중근님의 항일 투쟁을 담은 오페라 아리아를 연주함으로써 연주자들과 관객, 관객과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책 소개



“광야를 읽다”

저자 이진희 목사



본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성경암송과일”의 필자 이진희 목사(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의 저서 “광야를 읽다”가 최근 두란노에서 출간됐다. 총 228페이지.

“광야를 읽다”는 성경의 배경인 유대문화에 정통한 이진희 목사의 또 하나의 저서가 된다. 이진희 목사의 첫 저서 “유대적 배경에서 본 복음서”는 본지에 게재됐던 내용을 정리해 한 권으로 묶은 책이기도 하다.

기독교인들에게 “광야”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인생길에 있어서 광야는 분명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다. 그러나 그 힘든 광야를 지나야만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고성 함락이라든지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말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광야로 들어가다’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나오다’까지 14개의 키워드를 갖고 광야를 설명한다. 암갈색(우리 인생에도 짙빛광야의 시기가 있다), 양(광야에서는 목자의 돌봄이 절실하다), 나침반(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배두인(생각을 바꾸면 광야가 즐겁다), 수도원(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라), 장막(배두

세계 곳곳 광야를 탐방하며 경험한 이야기를 성경에 입각해 풀어

인에게서 떠남의 미학을 배우라), 오아시스(지독한 갈증이 생수의 참맛을 알게 한다), 그늘(광야에서는 로렘나무 그늘이라도 찾아가야 한다), 가이드(혼자라고 생각할 때 손 내미는 이가 있다), 낙타(광야에서는 로프가 아닌 낙타를 사라), 이슬(인생의 광야를 적시는 이슬같은 은혜가 있다), 싯딤나무(건뎐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라), 떨기나무(광야의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백합화(은혜의 장대비가 내리면 광야에도 꽃이 핀다).

이 책의 특징은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견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광야를 직접 탐방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입각해 풀어낸 광야 이야기는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는 나그네들을 시원한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강준민 목사(LA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고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가 인생의 비애를 사라지게” 하며 “지나가는 광야, 통과하는 광야”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극찬하고 있다.

저자는 80년 광야생활을 통해 지도자로 세움 받은 모세를 생각하며,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다.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고 결론짓는다.

▲책문의: jinlee1004@yahoo.com

(유원정 기자)

‘코리아 환타지’, ‘오, 코리아~!’, ‘오페라 류관순-안중근’ 아리아, 윤동주 서시 등  
한국인 정서와 아름다운 민족혼 담아 자긍심 고취... 다민족 오케스트라 참여  
갑상선암 이기고 신앙으로 굳게 선 배재철 · 신선미의 듀엣무대 기대

문성 있는 탁월한 연주로 여러 의미 있는 음악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미주 음악인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어 그 추구가 주목된다.

“금년이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에 걸맞게 음악회의 주제로 ‘한국의 열’로 정하게 됐습니다.” 윤임상 음악감독은 음악회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다민족이 함께 참여한 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공연 외에 수많은 단체들에서 광복 70주년을 위한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지만 저희 공연은 광복70주년을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 하려고 합니다.”

연주회에서 불러질 ‘코리아환타지’, ‘오, 코리아~!’와 ‘오페라 류관순 · 안중근에 나오는 아리아 윤동주 서시 등, 수준 높은 음악들은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아름다운 민족혼을 그대로 담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음악회 타이틀에 걸맞게 ‘한국의 열’이 서려있는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게 되며 다민족 70여명으로 구성

된 LAKMA합창단과 50여명으로 구성된 영앤젤스 어린이합창단, 그리고 다민족 50여명의 LAKMA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져 인종과 세대를 초월한 프레젠테이션의 장을 펼친다.

특히, 유지태 주연의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피노’의 실제 주인공인 테너 배재철이 특별 출연한다.

갑상선 암으로 성대결절을 겪어 아팠지만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테너가수 배재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덟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어린 배재철은 흑석동 한가람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어린이 찬양대에서 노래를 익혔다. 이후 ‘누가누가 잘하나’에 출연해 박수갈채를 받으며 음악과 무대를 익히게 됐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 제대로 레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의 피나는 노력으로 원하던 한양대학교 음대에 입학하는 영광을 안게 됐고 휴학, 복학 등의 시련을 거치며 실력을 연마하고 드디어 이탈리아 베르디국립음악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도 만만치는 않았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봐도 유학비와 체재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콩쿨에 나가 입상하는 길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노래를 불렀다고 회고한다. 산레모 콩쿨 1등을 시작으로 베르체르콩쿨, 도밍고 콩쿨 등 입상이 이어졌고 헝가리 미슈콜츠시립극장에서 토스카로 데뷔하게 된다. 이후 2003년 그는 독일 자부르켄 주립극장 전속가수가 되는 영광을 안고 독일로 옮겨갔다.

그러나 행복은 계속되지 못했다. 베르디의 ‘돈까를로’공연 중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으나 갑상선 암! 이미 림프관에 전이되어 쉽지 않은 수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결국 오른쪽 신경을 떼어내야 했다. 성악가의 삶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일본인 의학박사 이시노노부히코를 만나게 하였고 성대 복원수술을 받게 됐다. 그 자세한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바로 ‘더 테너’. 영화 속의 배재철처럼 그는 다시 일어섰다.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의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도구로 삼으셨고 7월11일 LA에서 개최되는 2015 LAKMA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에도 세우셨다.

2015 LAKMA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 윤 교수는 “음악회는 대한민국 광

Communication의 장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테너와 미국의 한인 소프라노가 함께 하는 연주에서는 테너 배재철 씨가 선사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리아, 한국의 가곡들을 부르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한 “특별히 배재철 씨는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신선미 씨와 듀엣으로 안드레아 보첼리와 세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부르게 됩니다. 이곡은 마치 두 사람이 동일하게 겪은 갑상선 암과 작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두 연주자 사이의 깊은 교감과 두 연주자와 관객들 상호간 교류를 의미하는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음악회에 찾아오시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 한국문화원, KCCD, 월드미선대학교, 그레이스호스피스 등이 후원하는 2015 LAKMA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의 문의는 (213)800-2068 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건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목적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게!  
안중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쯤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